
'23년도 제주지역 인력양성기본계획서

2022. 11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차 례

I. 제주지역 산업 현황	1
1. 제주지역 산업 현황	1
2. 제주지역 노동시장 현황	9
3. 제주지역 산업 및 노동시장 현황 시사점	13
II. 제주지역 인력 및 훈련수급조사 분석 결과	15
1. 제주지역 인력 및 훈련수요조사 분석 결과	15
2. 제주지역 인력 및 훈련공급조사 분석 결과	59
3. 제주지역 인력 및 훈련수급 분석 결과	79
III. 제주지역 인력양성 기본방향	85
1. '22년도 제주지역 인력양성 기본방향 성과	85
2. '23년도 제주지역 인력양성 기본방향	88

I. 제주지역 산업 현황

1. 제주지역 산업 현황

□ 제주지역 경제현황 및 산업 분포도

○ 지역내총생산(GRDP)

- 제주의 지역총생산은 2020년 기준 약 18조 원으로 국내총생산의 약 0.97%를 차지

<표 1-1-1> 제주 지역총생산 및 1인당 GRDP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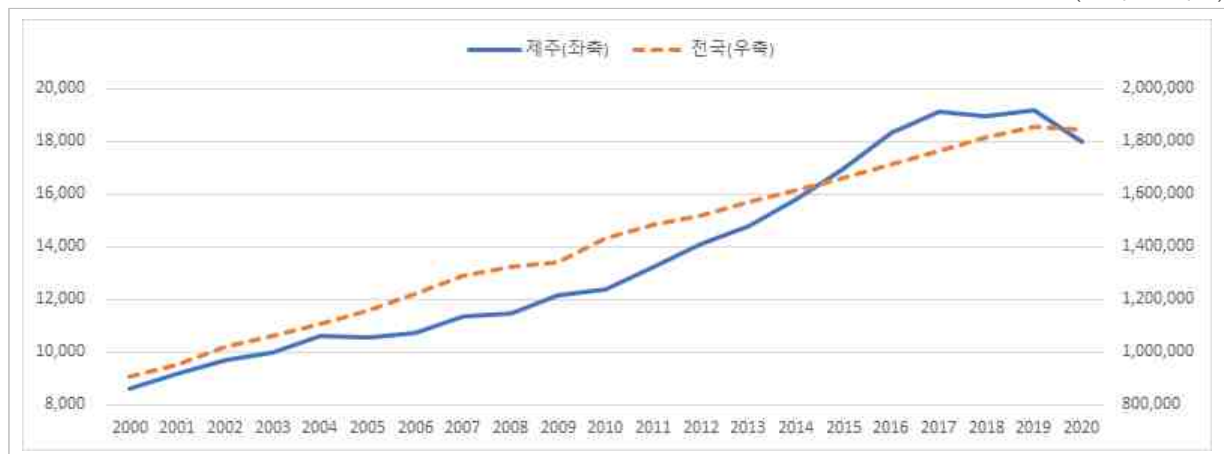
(단위: 십억원, 천원, %)

구 분		GRDP			전국 대비			연평균증감률	
		2000	2010	2020	2000	2010	2020	2000-2010	2010-2020
GRDP	제주	8,588	12,380	17,957	0.95	0.86	0.97	3.7	3.8
	전국	906,476	1,432,684	1,842,426	100	100	100	4.7	2.5
1인당 GRDP	제주	10,971	20,366	29,334	78.63	76.03	78.19	6.4	3.7
	전국	13,952	26,788	37,515	100	100	100	6.7	3.4

※ 자료 : 통계청, 『지역계정』, 실질가격(2015년 기준)

<그림 1-1-1> 제주 지역총생산 추이

(단위: 십억원)



※ 자료 : 통계청, 『지역계정』, 실질가격(2015년 기준)

○ 산업별 부가가치

- 제주 지역총생산 중 산업별 비중을 보면, 2020년 기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이 약 1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농림어업이 10.1%, 부동산업이 8.4%임

<표 1-1-2> 제주 산업별 부가가치

(단위: 십억원, %)

	2010	(산업별 비중)	(전국 비중)	2020	(산업별 비중)	(전국 비중)
총부가가치(기초가격)	11,618	100.0	100.0	16,535	100.0	100.0
농업, 임업 및 어업	1,828	15.7	2.3	1,667	10.1	1.9
제조업	459	4.0	29.1	683	4.1	28.7
건설업	898	7.7	5.8	1,258	7.6	5.2
도매 및 소매업	874	7.5	8.0	1,124	6.8	8.1
운수 및 창고업	539	4.6	3.7	632	3.8	3.0
숙박 및 음식점업	726	6.2	2.8	1,011	6.1	2.0
정보통신업	291	2.5	4.6	1,106	6.7	5.2
금융 및 보험업	529	4.5	5.2	1,060	6.4	6.6
부동산업	993	8.5	8.4	1,386	8.4	8.2
사업서비스업	629	5.4	8.6	1,191	7.2	9.4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316	11.3	6.3	2,223	13.4	6.6
교육 서비스업	919	7.9	5.7	1,149	7.0	5.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90	5.1	3.6	1,023	6.2	5.1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656	5.6	3.5	691	4.2	2.6

※ 자료 : 통계청, 『지역계정』, 실질가격(2015년 기준)

- 2013년~2020년의 제주도의 고용탄력성은 1.1로 전국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제주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력이 높음을 알 수 있음. 산업별로는 건설업과 서비스업에서 고용탄력성이 전국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1-1-3> 제주 산업별 고용탄력성

(단위: %)

	제주	전국
전체	1.1	0.4
농림어업	-1.7	25.2
제조업	-0.4	0.1
건설업	14.3	0.8
도소매·숙박음식점업	1.7	-0.1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0.9	0.7
전기·운수·통신·금융	0.4	0.1

※ 자료 : 통계청, 『지역계정』, 실질가격(2015년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

○ 사업체 현황

- 제주의 총사업체 수는 2020년 기준 68,491개로 2010년에 비해 약 2만 3천개가 늘어남

<표 1-1-4> 제주 산업별 사업체 수 추이

(단위: 개, %)

구 분	제주					전국			
	2010년	(비중)	2020년	(비중)	증감 (‘20-’10)	2010년	(비중)	2020년	(비중)
전체 산업	45,830	100.0	68,491	100.0	22,661	3,355,470	100.0	4,325,195	100.0
농업, 임업 및 어업	389	0.8	400	0.6	11	2,354	0.1	5,948	0.1
광업	20	0.0	10	0.0	-10	1,770	0.1	1,654	0.0
제조업	1,850	4.0	2,703	3.9	853	326,813	9.7	453,257	10.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8	0.0	58	0.1	40	934	0.0	4,449	0.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77	0.2	120	0.2	43	5,967	0.2	9,627	0.2
건설업	1,302	2.8	2,709	4.0	1,407	96,833	2.9	158,401	3.7
도매 및 소매업	11,969	26.1	15,561	22.7	3,592	876,654	26.1	1,064,434	24.6
운수 및 창고업	5,796	12.6	6,325	9.2	529	347,179	10.3	420,889	9.7
숙박 및 음식점업	10,785	23.5	21,083	30.8	10,298	634,500	18.9	829,555	19.2
정보통신업	230	0.5	407	0.6	177	26,375	0.8	49,435	1.1
금융 및 보험업	618	1.3	646	0.9	28	39,353	1.2	43,242	1.0
부동산업	681	1.5	2,198	3.2	1,517	113,154	3.4	177,046	4.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72	1.5	1,486	2.2	814	70,601	2.1	129,778	3.0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087	2.4	1,775	2.6	688	48,837	1.5	77,568	1.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08	0.5	209	0.3	1	11,929	0.4	12,385	0.3
교육 서비스업	2,301	5.0	2,842	4.1	541	165,964	4.9	191,529	4.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473	3.2	2,019	2.9	546	107,012	3.2	149,351	3.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397	3.0	1,998	2.9	601	102,948	3.1	123,249	2.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957	10.8	5,942	8.7	985	376,293	11.2	423,398	9.8

※ 주 : 2010년 자료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9차 분류, 2018년은 10차 분류로 9차 분류의 서비스업 중 일부(수리업 등)가 10차 분류 제조업에 포함됨.

※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경제총조사(2020년 조사기반)

○ 종사자 수

- 제주의 사업체 총 종사자 수는 2020년 기준 약 27만 명이며, 2010년 약 20만 3천명에서 약 6만 8천명이 증가함

<표 1-1-5> 제주 산업별 종사자 수 추이

(단위: 명, %)

구 분	제주					전국			
	2010년	(비중)	2020년	(비중)	증감 (20~10)	2010년	(비중)	2020년	(비중)
전체 산업	202,676	100.0	270,199	100.0	67,523	17,647,028	100.0	21,583,421	100.0
농업, 임업 및 어업	3,915	1.9	2,971	1.1	-944	30,418	0.2	47,481	0.2
광업	306	0.2	186	0.1	-120	16,377	0.1	13,838	0.1
제조업	8,540	4.2	11,992	4.4	3,452	3,417,698	19.4	3,984,905	18.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813	0.4	1,097	0.4	284	51,010	0.3	69,138	0.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837	0.4	1,165	0.4	328	84,389	0.5	115,110	0.5
건설업	16,694	8.2	19,441	7.2	2,747	1,180,659	6.7	1,431,792	6.6
도매 및 소매업	33,259	16.4	40,803	15.1	7,544	2,617,891	14.8	2,962,630	13.7
운수 및 창고업	13,538	6.7	14,862	5.5	1,324	992,546	5.6	1,091,939	5.1
숙박 및 음식점업	33,005	16.3	52,660	19.5	19,655	1,766,290	10.0	2,023,871	9.4
정보통신업	4,032	2.0	5,278	2.0	1,246	468,585	2.7	620,982	2.9
금융 및 보험업	9,120	4.5	8,824	3.3	-296	706,859	4.0	680,970	3.2
부동산업	2,014	1.0	5,369	2.0	3,355	395,956	2.2	510,503	2.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291	2.1	7,966	2.9	3,675	750,393	4.3	1,159,853	5.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8,943	4.4	11,917	4.4	2,974	833,274	4.7	1,108,666	5.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0,320	5.1	15,385	5.7	5,065	663,673	3.8	819,440	3.8
교육 서비스업	17,430	8.6	20,908	7.7	3,478	1,420,892	8.1	1,579,773	7.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5,971	7.9	26,991	10.0	11,020	1,084,758	6.1	2,156,232	1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892	4.4	10,446	3.9	1,554	322,881	1.8	380,824	1.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756	5.3	11,938	4.4	1,182	842,479	4.8	825,474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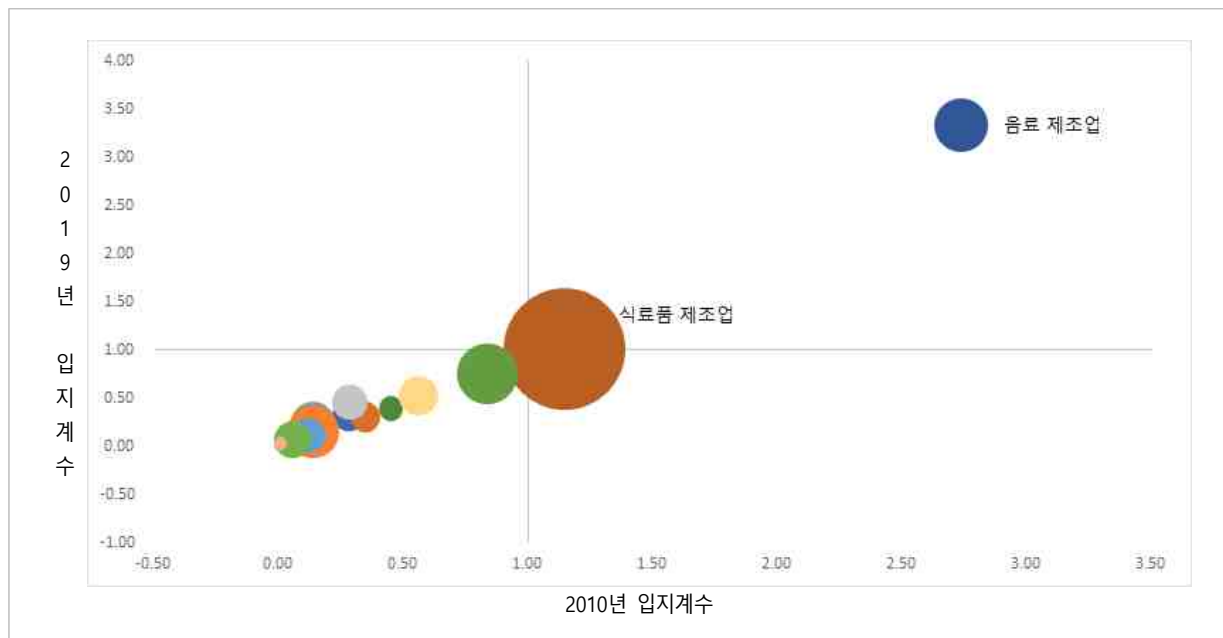
※ 주 : 2010년 자료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9차 분류, 2018년은 10차 분류로 9차 분류의 서비스업 중 일부(수리업 등)가 10차 분류 제조업에 포함됨.

※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경제총조사(2020년 조사기반)

○ 특화산업

- 입지계수를 통해 일자리 관점에서 제주도가 어떤 산업에 특화되어 있는지 보고자 함
 - 입지계수(LQ, : Location Quotient)는 어떤 지역의 특정 산업이 국가 전체에 비교해 어느 정도 특화되어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임. LQ가 1보다 크면 기반 산업으로 간주하며, 1보다 작으면 비기반산업으로 분류함
- 제조업 중분류 기준 입지계수(2010년, 2019년)
 - 1사분면에 있는 산업은 2010년과 2019년 모두 입지계수가 1 이상인 산업으로 특화산업에 해당하며, 음료제조업과 식료품 제조업만 해당함
 - 3사분면에 있는 산업은 2010년과 2019년 모두 입지계수가 1 이하인 산업으로 위의 두 산업을 제외한 제조업 전 산업이 해당함
 - 그래프에서 원의 크기는 제조업 내에서 2019년 종사자 수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냄

<그림 1-1-2> 제주 제조업 중분류별 입지계수 산포도(2010년-2019년)



※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2019년 제조업 입지계수를 2010년과 비교하면, 식료품 제조업은 입지계수 감소, 음료 제조업은 증가함

<표 1-1-6> 제주 제조업 산업 중분류별 입지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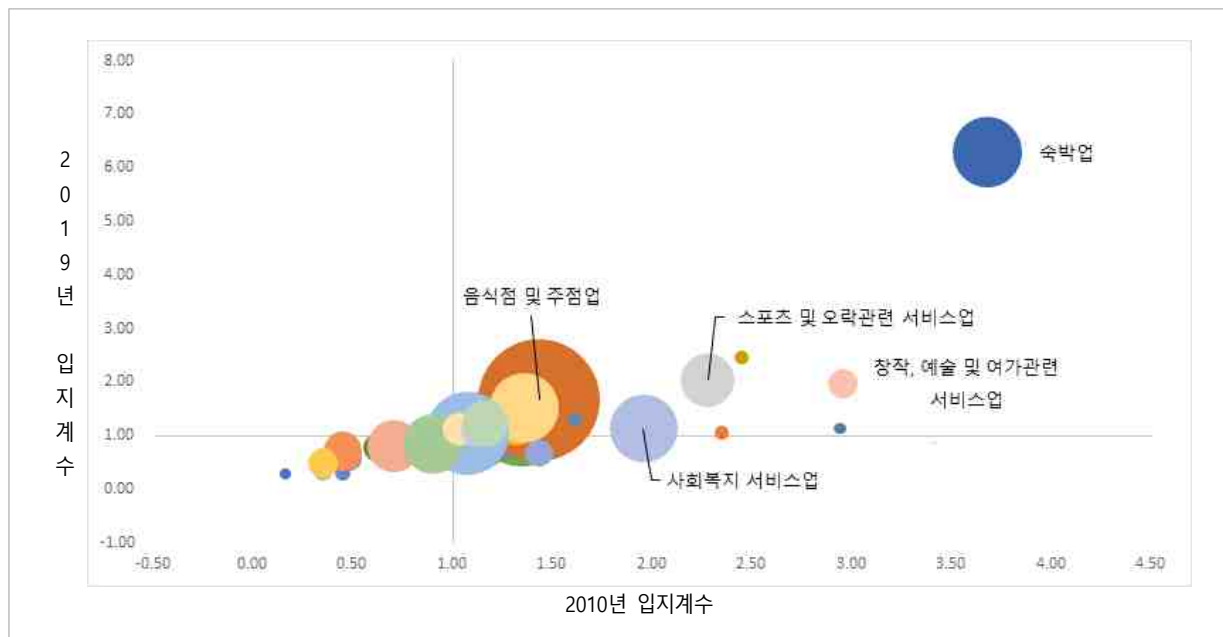
구 분	입지계수(LQ)	
	2010년	2019년
식료품 제조업	1.14	1.01
음료 제조업	2.73	3.34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0.09	0.15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0.12	0.10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0.02	0.08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0.45	0.3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0.28	0.32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35	0.3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0.08	0.0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0.14	0.25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0.15	0.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13	0.1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0.83	0.75
1차 금속 제조업	0.01	0.0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0.13	0.1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0.05	0.0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0.08	0.11
전기장비 제조업	0.11	0.1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0.05	0.0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0.00	0.0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01	0.03
가구 제조업	0.28	0.46
기타 제품 제조업	0.56	0.52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0.71

※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서비스업 중분류 기준 입지계수(2010년, 2019년)

- 1사분면에 있는 산업, 서비스업 특화산업은 숙박업, 수상운송업, 임대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음식점 및 주점업, 소매업, 방송업 등이 해당함
- 4사분면에 있는 산업은 2010년에는 특화산업이었으나, 2019년에는 특화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산업으로,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0.67)이 해당함
- 그래프에서 원의 크기는 서비스업 내에서 2019년 종사자 수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냄

<그림 1-1-3> 제주 서비스업 중분류별 입지계수 산포도(2010년-2019년)



※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입지계수가 1 이상인 산업 중 2010년과 비교하여 2019년 입지계수가 증가한 산업은 소매업, 수상 운송업, 숙박업 및 주점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등임

<표 1-1-7> 제주 서비스업 산업 중분류별 입지계수

구 분	입지계수(LQ)	
	2010년	2019년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0.85	0.93
도매 및 상품중개업	0.78	0.80
소매업, 자동차 제외	1.34	1.37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26	1.11
수상 운송업	2.44	2.47
항공 운송업	2.93	1.13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0.62	0.78
숙박업	3.67	6.29
음식점 및 주점업	1.43	1.66
출판업	0.48	0.57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0.48	0.44
방송업	1.61	1.31
통신업	1.00	0.78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0.15	0.28
정보서비스업	2.34	1.06
금융업	1.31	1.20
보험 및 연금업	1.32	1.11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0.44	0.29
부동산업	0.44	0.71
연구개발업	0.34	0.33
전문서비스업	0.34	0.48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0.70	0.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94	0.88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1.43	0.67
사업지원 서비스업	0.70	0.81
임대업,부동산 제외	2.28	2.1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35	1.52
교육 서비스업	1.07	1.04
보건업	0.89	0.85
사회복지 서비스업	1.95	1.12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95	1.97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2.27	2.04
협회 및 단체	1.03	1.12
수리업	1.11	1.10
기타 개인 서비스업	1.16	1.22

※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 제주지역 노동시장 현황

□ 인구 동향

○ 생산가능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 제주의 2022년 3분기 기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약 57만 5천명으로 전국 생산가능인구의 약 1.27%임
- 2022년 3분기 기준 경제활동인구는 약 41만 명이며, 경제활동참가율은 71.5%임

<표 1-2-1> 제주지역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추이

(단위: 천명, %)

항목	2020 1/4	2020 2/4	2020 3/4	2020 4/4	2021 1/4	2021 2/4	2021 3/4	2021 4/4	2022 1/4	2022 2/4	2022 3/4
15세 이상 인구	562.4	562.6	563.3	564.5	565.9	566.9	568.4	570.4	571.8	573.8	575.2
(전국 대비 비중)	1.26	1.26	1.26	1.26	1.26	1.26	1.26	1.26	1.26	1.27	1.27
경제활동인구	390.5	383.1	386.3	391.0	390.8	401.0	389.7	399.7	402.7	405.0	411.4
(전국 대비 비중)	1.40	1.36	1.38	1.40	1.41	1.40	1.37	1.41	1.42	1.39	1.41
경제활동참가율	69.4	68.1	68.6	69.3	69.1	70.7	68.6	70.1	70.4	70.6	71.5
(전국 경제활동참가율)	62.5	62.7	62.6	62.4	61.7	63.5	63.1	63.0	62.7	64.6	64.4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고용률

- 제주지역 고용률은 2022년 3분기 기준 70.2%로 전국평균보다 7%p 이상 높은 수준임
-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0년 2분기는 65.9%로 최근 3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나,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연령별 고용률을 보면, 2022년 3분기 기준 청년층은 49.3%로 전국평균보다 2.1%p 높은 수준임. 청년층 고용률은 2022년 2분기까지는 전국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역전되어 전국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표 1-2-2> 연령별 고용률 추이

(단위: %)

		2020 1/4	2020 2/4	2020 3/4	2020 4/4	2021 1/4	2021 2/4	2021 3/4	2021 4/4	2022 1/4	2022 2/4	2022 3/4
고용률	전체	67.5	65.9	67.2	67.9	66.3	68.4	66.8	68.3	68.7	69.2	70.2
	15~29세	40.9	41.1	42.3	41.7	41.4	44.7	41.5	42.6	45.2	45.0	49.3
	30~39세	77.1	75.4	77.2	78.7	77.8	77.2	77.2	79.9	82.5	83.6	84.1
	40~49세	84.0	81.9	82.3	84.5	83.5	85.1	82.2	83.7	85.3	84.2	84.6
	50~64세	80.2	76.5	78.4	79.8	78.1	79.1	79.8	81.8	79.2	79.1	80.0
	65세 이상	50.7	50.5	51.3	50.8	46.6	51.8	48.9	49.0	48.7	51.8	50.9
격차 (제주-전국)	전체	7.6	5.9	6.8	7.9	7.7	7.4	5.5	7.2	8.2	6.5	7.4
	15~29세	-1.7	-0.6	-0.3	-0.3	-0.7	0.4	-3.8	-2.5	-0.8	-2.3	2.1
	30~39세	0.9	0.3	2.5	3.7	3.2	1.8	2.1	3.9	6.0	6.5	6.4
	40~49세	6.3	5.2	5.5	7.5	7.0	7.7	4.5	6.1	7.8	5.9	6.3
	50~64세	10.6	6.5	8.0	9.6	10.1	8.5	8.9	10.4	8.6	6.0	7.1
	65세 이상	19.6	15.9	15.4	16.2	15.5	15.4	12.1	13.9	16.3	14.3	12.8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취업자 동향

- 2022년 취업자 수는 약 39만 7천명으로, 2021년 대비 3.9% 증가
- 관광산업 등 서비스업 중심인 제주의 특성상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취업자는 전국평균보다 더 많이 감소했으나 2022년 최근에는 전국평균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음

<표 1-2-3> 제주지역 취업자 수 및 연령별 비중 추이

(단위: 천명,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취업자수	374.2	372.0	381.7	378.1	382.9	397.7
(증가율)	5.5	-0.6	2.6	-0.9	1.3	3.9
(전국 증가율)	1.2	0.4	1.1	-0.8	1.4	2.8
비중	15 - 29세	13.6	13.4	12.7	12.0	12.5
	30 - 39세	20.0	19.9	18.4	18.0	17.6
	40 - 49세	25.3	25.1	25.1	24.6	23.7
	50 - 64세	30.2	31.0	31.5	31.8	32.1
	65세 이상	10.9	10.7	12.4	13.6	14.0

※ 주 : 2021년은 1분기~3분기 평균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산업별 취업자 추이를 보면,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2022년 약 6만 3천명으로, 2020년에 비하면 약 1만명 이상 감소함. 제조업 취업자는 2019년까지 감소 추세였으나, 이후 소폭 상승하여 2022년에는 약 1만 6천명으로 증가

<표 1-2-4> 제주지역 산업별 취업자 추이

(단위: 천명, %)

구 분	2018	비중	전국 비중	2019	비중	전국 비중	2020	비중	전국 비중	2021	비중	전국 비중	2022	비중	전국 비중
취업자 수	372.0	100.0	100.0	381.7	100.0	100.0	378.1	100.0	100.0	382.9	100.0	100.0	397.7	100.0	100.0
농림어업	58.6	15.8	5.0	67.1	17.6	5.1	73.9	19.5	5.4	66.9	17.5	5.3	62.7	15.8	5.5
제조업	11.9	3.2	16.8	11.6	3.0	16.3	12.2	3.2	16.3	14.4	3.8	16.0	15.9	4.0	16.1
건설업	33.9	9.1	7.6	35.8	9.4	7.4	33.4	8.8	7.5	36.6	9.6	7.7	36.1	9.1	7.6
도소매·숙박음식점업	89.9	24.2	22.2	89.2	23.4	22.0	90.4	23.9	21.0	93.0	24.3	20.0	97.0	24.4	19.5
사업개안·공공서비스 및 기타	136.2	36.6	36.5	136.9	35.9	37.4	134.0	35.4	38.0	138.6	36.2	38.6	153.1	38.5	38.9
전기·운수·통신·금융	41.1	11.0	11.8	40.9	10.7	11.7	33.9	9.0	11.8	33.4	8.7	12.3	32.8	8.2	12.4

※ 주 : 2021년은 1분기~3분기 평균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직업별 취업자 추이를 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2022년 약 6만 2천명으로 2018년 이후 증가 추세. 사무종사자는 2020년 약 5만 3천명까지 감소했으나 최근에는 다시 늘어나 2022년 5만 9천명으로 증가

<표 1-2-5> 제주지역 직업별 취업자 추이

(단위: 천명, %)

구 분	2018	비중	전국 비중	2019	비중	전국 비중	2020	비중	전국 비중	2021	비중	전국 비중	2022	비중	전국 비중
취업자 수	372.0	100	100	381.7	100	100	378.1	100	100	382.9	100	100	397.7	100	100
1 관리자	1.9	0.5	1.4	3.6	0.9	1.5	5.3	1.4	1.5	9.8	2.6	1.4	9.2	2.3	1.5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6.4	12.5	20.5	48.2	12.6	20.5	52.3	13.8	20.4	57.4	15.0	20.5	62.1	15.6	20.9
3 사무 종사자	66.0	17.7	17.8	58.4	15.3	17.5	53.2	14.1	17.4	55.1	14.4	17.4	58.5	14.7	17.3
4 서비스 종사자	58.0	15.6	11.1	61.7	16.2	11.5	63.1	16.7	11.3	58.5	15.3	11.3	61.6	15.5	11.5
5 판매 종사자	39.3	10.6	11.3	36.8	9.6	11.2	34.1	9.0	10.8	36.5	9.5	10.1	38.7	9.7	9.6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50.6	13.6	4.7	56.0	14.7	4.9	63.2	16.7	5.1	56.5	14.8	5.1	56.3	14.2	5.2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30.6	8.2	8.7	29.4	7.7	8.7	24.0	6.3	8.7	23.6	6.2	8.8	27.7	7.0	8.6
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25.1	6.7	11.6	26.2	6.9	11.2	24.0	6.3	11.0	27.9	7.3	10.9	26.5	6.7	10.9
9 단순노무 종사자	54.0	14.5	13.0	61.5	16.1	13.0	58.8	15.6	13.8	57.5	15.0	14.4	56.9	14.3	14.4

※ 주 : 2021년은 1분기~3분기 평균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추이를 보면, 상용근로자는 2022년 기준 약 18만 명으로 증가 추세이며, 임시근로자는 약 5만 8천명으로 2021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남

<표 1-2-6> 제주지역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추이

(단위: 천명, %)

구 분	2018	비중	전국 비중	2019	비중	전국 비중	2020	비중	전국 비중	2021	비중	전국 비중	2022	비중	전국 비중
취업자 수	372.0	100	100	381.7	100	100	378.1	100	100	382.9	100	100	397.7	100	100
상용근로자	151.9	40.8	51.3	152.0	39.8	52.4	159.9	42.3	54.0	172.4	45.0	54.6	180.3	45.3	55.8
임시근로자	67.4	18.1	18.1	64.2	16.8	17.7	52.9	14.0	16.7	50.0	13.1	17.0	58.0	14.6	16.7
일용근로자	26.6	7.2	5.4	30.5	8.0	5.3	27.4	7.2	4.9	26.6	6.9	4.5	23.3	5.9	4.0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5.3	6.8	6.2	26.4	6.9	5.7	23.9	6.3	5.1	28.4	7.4	4.8	30.3	7.6	4.9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77.8	20.9	14.9	85.2	22.3	15.0	86.9	23.0	15.5	79.6	20.8	15.4	77.3	19.4	15.2
무급가족종사자	23.0	6.2	4.1	23.2	6.1	4.0	27.2	7.2	3.9	25.8	6.7	3.7	28.6	7.2	3.4

※ 주 : 2021년은 1분기~3분기 평균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3. 제주지역 산업 및 노동시장 현황 시사점

□ 경제 및 산업일반

- (지역총생산) 서비스업 중에서는 전국평균보다 숙박 및 음식점업(6.1%), 교육 서비스업(7%),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4.2%), 정보통신업(6.7%)의 비중이 큰 편임
- (사업체 수) 2010년과 비교하여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이 10,298개 증가했으며, 도소매업이 3,592개, 부동산업 1,517개, 건설업 1,407개, 제조업 853개가 늘어남
- (종사자 수) 2010년과 비교하여 사업체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약 2만명이 증가함. 그 다음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약 1만 1천명, 도매 및 소매업이 약 8천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이 약 5천명이 늘어남

□ 노동시장 동향

- (생산가능인구) 최근 3년간 인구 비중이 증가하는 연령층은 50~64세와 65세 이상의 중장년, 고령층이며, 15~29세의 청년층과 30대의 인구 비중은 감소하였음. 이는 청년층의 인구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 (고용률) 최근 3년 동안의 연령별 고용률을 분기별로 보면, 계절적 요인이 강한 제주의 특성상 하절기인 2분기에 고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지만 15~29세 청년층과 30대 고용률은 2021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임
- (취업자) 전반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서비스업과 상용직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하는 추세임
- (임금수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전국평균보다 높은

임금수준을 보이는 특성을 볼 때 제주도의 임금수준이 낮다고 볼 수는 없음. 다만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청년층이 희망하는 양질의 일자리 부문의 임금 수준은 상대적으로 전국평균에 비해 낮다는 과제를 안고 있음

- (인력부족률 및 구인구직) 코로나 이후 지역경제가 회복되면서 제주도 사업체의 인력부족률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나 구인배율은 0.5로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한 것으로 보임. 특히 돌봄서비스직이나 제조 단순직, 농림어업직은 구직자에 비해 구인이 더 많아 필요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들 분야의 노동공급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II. 제주지역 인력 및 훈련수급조사 분석 결과

1. 제주지역 인력 및 훈련수요 조사 분석 결과

1.1 기초 수요조사 분석 결과

□ 기초 수요조사 추진체계

	기초 훈련수요조사	사업체 정성조사(FGI)	기초 훈련수요조사 결과분석
조사 및 분석 대상	제주 내 KSIC 중분류 기준 49개 업종에 속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수요조사 응답 대상 사업체 중 제주지역 전략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담당자 및 제주지역 교육 훈련 기관 담당자	2022년 제주지역 「기초 훈련 수요조사」 결과
조사 지역	제주 전역	제주 전역	제주 전역
조사 및 분석 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팩스 웹 조사	FGI (Focus Group Interview)	- 인력 규모 및 수요 분석 - 양성훈련 및 향상훈련 수요 추정
표본 구성	총 1,057개	총 6개 그룹	총 1,057개
조사 및 분석 기간	2022년 4월 15일 ~ 7월 20일 (총 4개월간)	2022년 10월 24일 ~ 10월 27일 (총 4일간)	2022년 9월 19일 ~ 11월 30일 (총 3개월간)
주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 기초 수요조사 개요(정량조사)

○ 조사목적

- 제주도 소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맞춤형으로 공급하기 위해 산업계의 인력 및 훈련수요를 파악
- 특히 제주도 소재 기업에서 원하는 신규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하고, 나아가 재직인력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생성

○ 조사범위

- 「지역 훈련수요조사」는 각 광역지자체 공통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중분류 및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설정하며, 산업 및 사업체 규모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52개 산업

※ 단, 제주도는 52개 산업 중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5), 1차 금속 제조업(24)의 2개의 산업에서 사업체가 존재하지 않은 관계로 최종적으로 50개 산업 대상 조사

- 사업체 규모 : 제주도 소재 사업체 중 상시종사자 기준 5인 이상을 기준으로 5개의 틀

※ 사업체규모 분류 1영역(5~9인), 2영역(10~29인), 3영역(30~99인), 4영역(100~299인), 5영역(300인 이상)

- 조사규모 : 조사범위 사업체 중 산업 및 사업체규모별로 층화계통추출을 통해 선별된 1,000여 개 사업체

- 조사대상 : 기본적으로는 인사부서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되, 재직자 훈련에서 인사부서 관계자가 직무별 훈련수요에 대해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업부서장을 컨택하여 조사 진행

<표 2-1-1> 조사대상 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산업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산업표준산업분류 중분류	
10	식품품 제조업	41	종합건설업
11	음료 제조업	42	전문직별 공사업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0	수상 운송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55	숙박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56	음식점 및 주점업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58	출판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24	1차 금속 제조업	60	방송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61	우편 및 통신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63	정보서비스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71	전문 서비스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32	가구 제조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86	보건업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조사방법 : 사전 컨택 후 조사대상자의 여건과 편의를 고려해 방문, 이메일, 팩스, 웹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사 진행
- 조사기준시점 : 2021년 12월 31일 기준. 구간 시점 기준은 2021. 1. 1. ~ 2021. 12. 31. 1년간
- 설문지 설계 : 제주지역 사업체의 인력 및 훈련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 항목은 <표 2-1-2>와 같음

<표 2-1-2> 「지역 훈련수요조사」 설문 항목

번호	설문 대분류	설문 항목	
I	일반 현황	사업체현황	사업체 명칭 / 사업자 등록번호 / 사업체 소재지 / 경영형태 / 산단입주여부 / 사업형태 / 주요 생산품명/ 영업종목 / 표준산업분류(세분류), 주요업종
		근로자현황	전체종사자수 / 내국인(상용근로자, 기타) / 외국인
II	인력수요 및 신규채용자 부족 역량	직업일련번호	
		직업분류	직무내용 / 직업분류코드
		현재인원	종사자수 / 종사자 중 근속 1년 미만자 수
		퇴직상황	퇴직자수 / 퇴직자 중 근속 1년 미만자 수
		채용상황	구인인원(신입/경력) / 실제채용인원(신입/경력)
		2022년 채용예정인원	2022년 채용예정인원(신입/경력) / 2022년 채용예정인원 신입 중 직업계고 채용예정 인원수
		2023년 채용예정인원	
III	실제 채용인원 중 신입직 부족 역량	직업일련번호	
		직업분류	직무내용 / 직업분류코드
		실제채용인원(신입직)	
		실제채용인원 중 신입직 중 직업교육훈련 필요 인원	
		부족역량	NCS 세분류기준 / 직업기초능력 기준
IV	재직자 훈련 수요	직업일련번호	
		직업분류	직무내용 / 직업분류코드
		기업전체 종사자수	
		종사자 중 직업교육 훈련 필요 인원	
		훈련필요분야	NCS 세분류별 훈련필요 인원(% 또는 명) 직업기초능력별 훈련필요 인원(% 또는 명)
V	교육훈련 추진시 애로 사항	교육훈련 애로사항에 대한 질문	
VI	4차 산업혁명과 신기술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분야 도입 여부 / 도입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분야 및 종사자 수 / 현재 도입하고 있거나 도입할 예정인 신기술분야와 해당 분야별 필요 인력 / 신기술분야 도입·운영과 관련된 인력 현황 및 수준 / 신기술분야 도입·운영시 필요한 직무분야 / 채용 희망 기술분야의 인재에게 필요한 교육과정 / 신기술분야 관련 직업교육훈련 실시 방식 / 신기술분야 인력 채용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항목	
VII	일학습 병행 수요	일학습병행제 인지여부 및 인지경로 / 일학습병행 참여 이력 / 일학습병행 참여 의사 및 참여인원, 훈련분야 / 신규 인력 채용 시 직무능력 수준 / 인근지역의 직무와 관련이 높은 교육기관명	

○ 표본설계

- 모집단

- 2022년 2월 기준 고용보험 사업장 명부 중에서 해당 지역 내의 상시종사자 기준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함
- 제주지역의 50개 산업 중분류별, 종사자규모별 조사대상 모집단은 총 4,275개 사업체로 <표 2-1-3>과 같음
- 산업 중분류별로 보면, 보건복지서비스업(87)이 가장 많고, 종합건설업(41), 음식점 및 주점업(56), 소매업(47), 도매 및 상품중개업(46), 보건업(86) 사업체가 다음 순서로, 이들 6개 산업의 분포가 60%를 상회. 반대로 섬유제품 제조업 등 18개 산업의 경우 해당 사업체가 10개 미만으로 매우 적음
- 사업체규모별로 보면, 상시근로자 5~9인 규모 사업체는 55.4%, 10~29인 규모 34.2%, 30~99인 규모 8.8%, 100~299인 규모 1.3%, 300인 이상 규모 0.5%의 비중을 보임

- 층화

- 조사 대상의 산업중분류와 종사자 규모가 층화변수임
- 제주지역 내의 산업중분류 내에서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도록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총 5개 규모를 고려하여 층을 구성하였음
- 사업체규모 구분은 사업체 내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5~9인(규모 '1'), 10~29인(규모 '2'), 30~99인(규모 '3'), 100~299인(규모 '4'), 300인 이상(규모 '5')으로 층화함

- 표본추출

- 제주지역의 조사대상 목표표본추출 결과 총 1,000개 사업체로 <표 2-1-4>와 같음
- 제주지역에 포함된 대상 산업중분류 및 종사자 규모별 층에서 표본추출은 각 층에 속한 사업체들의 소재지 행정 구역에 따라 정렬한 후 계통 추출법을 적용하여 추출함

<표 2-1-3> 산업중분류별 사업체규모별 사업체수 현황_모집단

(단위: 개소)

구분	전체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전체	4,275	2,368	1,462	369	56	20
10 식료품 제조업	172	85	73	14	0	0
11 음료 제조업	15	5	4	5	0	1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7	1	6	0	0	0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3	1	2	0	0	0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4	3	1	0	0	0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9	2	5	2	0	0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0	7	1	2	0	0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7	16	10	1	0	0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7	10	7	0	0	0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2	20	32	0	0	0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47	40	7	0	0	0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	3	0	1	0	0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5	2	2	1	0	0
28 전기장비 제조업	16	10	6	0	0	0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	7	9	0	0	0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	1	1	0	0	0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	3	0	0	0	0
32 가구 제조업	3	2	1	0	0	0
33 기타 제품 제조업	9	6	3	0	0	0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2	9	3	0	0	0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9	2	1	3	1	2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2	0	1	0	1	0
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31	19	12	0	0	0
41 종합건설업	621	431	173	15	2	0
42 전문직별 공사업	7	4	3	0	0	0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27	21	6	0	0	0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307	170	118	18	1	0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359	223	121	11	4	0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38	39	48	44	7	0
50 수상 운송업	16	2	9	5	0	0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55	27	16	11	0	1
55 숙박업	146	49	58	31	5	3
56 음식점 및 주점업	442	334	99	9	0	0
58 출판업	51	25	19	6	0	1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	1	5	0	0	0
60 방송업	6	0	2	3	1	0
61 우편 및 통신업	4	1	1	2	0	0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9	3	4	1	0	1
63 정보서비스업	7	3	3	0	0	1
71 전문 서비스업	119	94	20	2	3	0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	123	48	59	15	1	0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	10	1	0	0	0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63	32	18	10	2	1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98	44	39	10	4	1
86 보건업	270	171	66	22	5	6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673	287	289	87	10	0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7	27	26	3	1	0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7	23	33	32	7	2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87	45	39	3	0	0

<표 2-1-4> 산업중분류별 사업체규모별 사업체_표본설계

(단위: 개소)

구분	전체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전체	1,000	371	387	173	50	19
10 식료품 제조업	34	12	14	8	0	0
11 음료 제조업	12	4	4	3	0	1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7	1	6	0	0	0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3	1	2	0	0	0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4	3	1	0	0	0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9	2	5	2	0	0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0	7	1	2	0	0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4	7	6	1	0	0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2	6	6	0	0	0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7	8	9	0	0	0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7	10	7	0	0	0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	3	0	1	0	0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5	2	2	1	0	0
28 전기장비 제조업	12	7	5	0	0	0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2	6	6	0	0	0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	1	1	0	0	0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	3	0	0	0	0
32 가구 제조업	3	2	1	0	0	0
33 기타 제품 제조업	9	6	3	0	0	0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2	9	3	0	0	0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9	2	1	3	1	2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2	0	1	0	1	0
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14	8	6	0	0	0
41 종합건설업	98	37	44	15	2	0
42 전문직별 공사업	7	4	3	0	0	0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14	9	5	0	0	0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54	18	22	13	1	0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61	20	26	11	4	0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30	8	8	9	5	0
50 수상 운송업	12	2	6	4	0	0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8	6	6	5	0	1
55 숙박업	31	8	9	7	4	3
56 음식점 및 주점업	73	30	34	9	0	0
58 출판업	17	6	6	4	0	1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	1	5	0	0	0
60 방송업	6	0	2	3	1	0
61 우편 및 통신업	4	1	1	2	0	0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9	3	4	1	0	1
63 정보서비스업	7	3	3	0	0	1
71 전문 서비스업	27	11	11	2	3	0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	27	9	11	6	1	0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	10	1	0	0	0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19	6	6	4	2	1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24	7	7	5	4	1
86 보건업	48	14	14	10	5	5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106	27	39	30	10	0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8	7	7	3	1	0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24	5	7	6	4	2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2	9	10	3	0	0

○ 가중치 산출

- 가중치 산정

- 가중치는 각 산업중분류 업종 내 5개 사업체 규모에서 모집단 사업체 수와 표본 사업체 수의 비율로 계산할 수 있음
- 즉, 모집단 수 N , 표본 수 n 일 때 가중치는 $w = \frac{N}{n}$ 으로 계산함
- 복합표본조사(complex sample survey)의 가중치는 ① 설계가중치, ② 무응답 조정, ③ 사후층화 조정 등의 세 가지 요인을 통합하여 산정됨
- 본 조사의 표본 사업체 추출은 제주지역에서 대상 산업중분류와 사업체규모를 층화변수로 하여 층화계통추출법에 의해 실시. 따라서 각 세부 층에서는 추출률이 동일하며 무응답 조정을 위한 무응답 조정셀은 산업중분류와 사업체규모임
- 모집단의 보조정보를 이용한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 조정에서도 산업 중분류 그리고 사업체규모를 층화변수로 이용함
- 전수층에서 무응답이나 응답거절로 응답률이 100%가 되지 않는 경우는 무응답 조정과 사후층화 조정의 과정을 거쳐 최종 가중치를 산정함
- 만약 특정 조사항목에 대한 항목 무응답이 있는 경우에는 회귀대체(regression imputation)를 사용하여 대체함. 회귀대체를 사용할 경우에는 특정항목과 관련이 높은 보조변수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얻을 수 있음

○ 표본관리 및 대체

- 모집단 관리

- 표본설계 시 사용한 모집단 자료는 2021년 2월 기준 「고용보험DB」 상 사업체 자료로 최근 자료이지만 조사시점과 차이가 있어 모집단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음
- 정확한 통계작성을 위해 최신의 모집단 자료로 갱신해서 모집단 변동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표본설계를 수정 보완하였으며, 새로운 모집단 자료가 파악되면 모수추정에 있어서 가중치의 산정자료로 활용하여 정도 높은 통계작성이 되도록 함

- 표본 관리

- 모집단의 변동과 관계없이 표본으로 선정된 사업체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경우, 선정된 사업체와 동일한 산업분류와 사업체 규모의 사업체를 예비표본에서 대체함

- 표본으로 선정된 사업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선정된 사업체의 산업 분류와 사업체 규모가 동일한 예비표본을 이용하여 대체함. 예비표본은 전수층을 제외한 표본층에 대해 4배수의 예비표본을 추출함. 대체표본 적용 기준은 우선 산업분류별, 종사자 규모별 순으로 매칭하여 대체함
- 표본으로 추출된 사업체에서 규모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표본설계 당시의 사업체규모로 분류해서 통계를 작성함

- 비표본오차의 관리

- 조사대상 업체가 폐업, 휴업, 전업 등으로 접촉할 수 없게 되거나 표본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응답을 거부하게 되면 표본사업체로부터 결측이 발생함. 결측은 표본으로 추출된 해당 조사단위가 조사 참여를 거부하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발생하는 단위무응답(unit non-response)과 일부 조사항목에 대한 결측으로 인해 발생하는 항목무응답(item non-response)으로 구분됨
- 단위 또는 항목 무응답으로 인한 사업체의 결측을 줄이기 위해 표본으로 선정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보내거나 조사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최대한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수행함
- 조사항목의 결측이 생기게 되면 전화통화로 재차 표본 사업체와 접촉하여 보완하며, 보완이 불가능할 경우 결측치가 발생한 해당 결측치를 대체(imputation)하는 방안을 모색함
- 부득이하게 표본 사업체의 단위무응답으로 인해 결측이 생기면 결측 표본 사업체를 동일 산업의 다른 사업체로 교체하거나, 교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중치 조정을 통해 결측으로 인한 효과를 최대한 줄임

- 기타오차의 관리

- 조사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록에 의한 오차, 자료입력에 의한 오차 등의 비표본오차(non-sampling error)를 줄이기 위해 노력함
- 사전조사를 통해 오류발생 가능성이 큰 항목을 추출하고, 응답된 조사표 중 일부를 추출하여 전화를 통한 검증과정을 거쳐 응답자의 착각, 오해 등으로 인한 오차를 최대한 줄임
- KECO, NCS 등의 코드 입력과 KECO-NCS 연계 응답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조사표에 맞는 TAPI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접 검색하여 입력하도록 하여 입력 오차를 줄임

□ 기초 수요조사 개요(정성조사)

○ 조사목적 및 설계

- 『2022년 제주지역 기초 훈련공급 조사 및 수급분석』에서 도출된 훈련수요에 대한 관련업종 대표자 및 관리자 면담을 통해, 2023년 제주에 필요한 훈련과정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함
- 2023년 제주지역 인력양성계획 수립 근거로 활용

○ 조사방법 : FGI(Focus Group interview)

○ 조사대상 및 조사표본

- 2022년 제주지역 「기초 훈련수요조사」 참여리스트를 활용하여 사무국과 연구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

구분		업종명
수요조사 결과 기반	그룹1	도매 및 상품중개업
	그룹2	사업서비스업
	그룹3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지자체 전략산업관련	그룹4	수리업
	그룹5	정보통신서비스업
	그룹6	사회복지서비스업

○ 조사내용

항목	세부내용
업종별 산업 동향 및 인력수급 실태 파악	해당 산업 관련 전국·지역 동향 및 주요 현안
	2021~2022년 제주지역 인력 및 훈련수요 결과 비교
	해당 산업의 인력수급 동향과 애로사항
	해당 산업의 인력양성체계에 대한 평가
인력양성 관련 훈련수요 파악 및 정책 제언	(수요조사 결과 기반 업종 대상) 산업 발전을 위한 개선 필요사항
	(지자체 전략산업 관련 업종 대상) 지자체 전략산업 육성에 대한 의견
	지역 내 인력양성사업 참여 여부
	양성훈련 및 향상훈련의 지역 내 공급현황과 과제
	양성훈련 및 향상훈련 분야 우선순위 도출

○ 조사수행

- 제주RSC : 정성조사 총괄 진행 및 분석
- (주)칸타코리아 : 참여 기업 관계자 섭외
- 모더레이터 : 지역 일자리 전문가 중 유경험자 3명 선정
 - 서귀포시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고광희 단장, 제주연구원 이순국 책임연구원,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손성민 책임연구원

○ 조사 결과 분석 방법

- (1단계) 녹음 내용 텍스트 작업 및 문장 교정교열 검수
- (2단계) 인력수급 및 훈련수요 관련 핵심 내용 선별
- (3단계) 정량조사 결과와 비교분석 후 보고서 발간
 - ※ 이후 기초 수요조사 종합분석 결과 도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기초 수요조사 종합분석

○ 산업별 인력 현황(KSIC)

- 산업 중분류별로는 조사대상 총 49개 산업 중 10개 산업에서 인력수요 규모의 상위 5순위를 차지함
- 제주도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인력수요 규모 및 신규인력의 유출입이 가장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미충원인원 역시도 가장 많아 인력 미스매치도 가장 크게 발생하고 있고, 채용예정인원도 가장 많아 미래 인력수요에 있어서도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됨
- 인원 규모에 있어서는 종합건설업과 보건업 숙박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퇴직과 채용 등 유량적 개념에서의 유출입의 경우 음식점 및 주점업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반대로 음식점 및 주점업의 경우는 인력규모는 크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유출 및 유입 규모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산업으로 미충원인원 및 채용예정인원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향후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산업임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의 경우는 인력유출이 타 산업에 비해 크게 발생하고 있으나 구인 및 채용인원 규모는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아 인력유입 부분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는 인력 규모 및 유출입에 있어서는 크지 않으나 미충원인원 규모로 파악한 미스매치는 다른 산업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남

<표 2-1-5> 산업 중분류별 인력수요 규모 상위 5순위 리스트

구 분	현재 인원	퇴직 인원	근속 1년 미만 퇴직인원	구인 인원	채용 인원	미충원 인원	채용예정 인원
10 식료품 제조업						2	
41 종합 건설업	2			5	5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4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5	5	5				
55 숙박업	4			4	4		4
56 음식점 및 주점업		2	2	2	2	3	3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3			4	2
86 보건업	3	4		3	3	5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1	1	1	1	1	1	1
91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3					5

○ 직종별 인력 현황(KECO)

- 직업 중분류별로는 총 35개 직업 중 8개 직업에서 인력수요 규모의 상위 5순위를 모두 차지하고 있어 쏠림현상이 발생함
- 경영·행정·사무직과 음식서비스직에서 인력수요 및 유출입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음식 서비스직에서는 퇴직 및 채용이 가장 활발하게 발생하는 산업이며, 채용예정인원 규모도 가장 커 향후 인력수요도 커질 것으로 전망됨
- 운전·운송직의 경우는 인력 유출입은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미충원인원 및 채용예정인원의 경우는 타 산업과 비교해 상위 순위를 점유하지 못함으로 써 미래 인력수요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판단됨
- 보건·의료직은 인력 유출입은 상위 순위에 들지는 못하나 미충원인원 규모가 커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는 산업으로 나타남

<표 2-1-6> 직업 중분류별 인력수요 규모 상위 5순위 리스트

구분	현재 인원	퇴직 인원	근속 1년 미만 퇴직인원	구인 인원	채용 인원	미충원 인원	채용예정 인원
02 경영·행정·사무직	1	3		2	2	1	3
23 사회복지·종교직	3		5	3	3	2	4
30 보건·의료직	5					4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5
53 음식 서비스직	4	1	1	1	1	3	1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5	2	5		5	2
61 영업·판매직		4	3		5		
62 운전·운송직	2	2	4	4	4		

○ 기업규모별 인력 현황

- 사업체규모별로는 주로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인력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남
- 5~9인 및 10~29인 규모에서 인력 규모 및 유출입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사업체규모가 커질수록 인력 유출입 규모는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100~299인의 중견 규모 사업체의 경우 인력 규모 및 유출입, 미스매치, 그리고 2023년 채용예정규모도 가장 낮아 타 규모에 비해 인력수요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됨

<표 2-1-7> 사업체규모별 인력수요 규모 상위 5순위 리스트

구 분	현재 인원	퇴직 인원	근속 1년 미만 퇴직인원	구인 인원	채용 인원	미충원 인원	채용예정 인원
5~9인	2	2	1	1	1	2	1
10~29인	1	1	2	2	2	3	2
30~99인	3	3	3	3	3	1	4
100~299인	5	5	5	5	5	5	5
300인 이상	4	4	4	4	4	4	3

○ 양성훈련 수요

- 제주도 지역의 양성훈련 수요는 2022년 기준으로 1,069명으로 추정되며, 연도별로는 2023년에는 전년대비 4.2% 증가한 1,114명, 2024년에는 1.3% 증가한 1,128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전국의 양성훈련 수요는 2022년 기준으로 총 139,752명으로 같은 기간 제주지역이 차지하는 양성훈련 수요 규모는 0.76% 비중으로 나타남. 연도별 비중을 보면, 2023년에는 0.80%, 2024년 0.80%로 소폭 상승하는 패턴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그림 2-1-1> 제주지역 양성훈련 수요 추정 결과



- 산업별 양성훈련 수요(KSIC)
 - 2023년 기준으로 제주지역의 양성훈련 수요 추정 결과에 대해 산업별 분포를 보면,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전체 양성훈련 수요의 25.2%의 비중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업지원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의 순서로, 이들 4개 산업에서 각각 100명 이상의 양성훈련 수요 규모를 보임
 - 다음으로 식료품 제조업, 음식점 및 주점업의 순서를 보임. 양성훈련 수요는 앞서 분석한 채용인력 규모의 변화 패턴과 유사함
 - 제조업의 경우, 식료품 제조업을 제외하면 양성훈련 수요는 매우 적은 수준임
 - 전국의 산업별 분포와 비교하면, 음식점 및 주점업과 사업지원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의 양성훈련 수요 비중은 전국에 비해 높은 반면에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과 보건업의 경우는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의 비중을 보임

<표 2-1-8> 산업 중분류별 양성훈련 수요 추정 결과

(단위: 명, %)

구 분	전국	제주도		
	2023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체	139,267(100.00)	1,069(100.00)	1,114(100.00)	1,128(100.00)
10 식료품 제조업	3,312(2.38)	83(7.78)	88(7.93)	91(8.11)
11 음료 제조업	146(0.10)	14(1.34)	17(1.48)	21(1.88)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335(0.96)	15(1.42)	16(1.47)	16(1.41)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623(0.45)	-	-	-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00(0.07)	-	-	-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773(0.56)	-	-	-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158(0.83)	13(1.20)	13(1.19)	12(1.09)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12(0.15)	15(1.41)	15(1.33)	15(1.29)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3,213(2.31)	-	-	-
21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025(0.74)	-	-	-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630(1.89)	-	-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646(0.46)	-	-	-
24 1차 금속 제조업	760(0.55)	-	-	-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3,900(2.80)	-	-	-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279(3.07)	-	-	-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611(1.16)	4(0.41)	4(0.39)	4(0.38)
28 전기장비 제조업	2,808(2.02)	-	-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193(2.29)	-	-	-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717(1.95)	-	-	-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569(1.13)	-	-	-
32 가구 제조업	255(0.18)	-	-	-
33 기타 제품 제조업	629(0.45)	-	-	-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226(0.16)	-	-	-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474(0.34)	-	-	-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57(0.04)	-	-	-
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633(0.45)	2(0.19)	3(0.24)	3(0.23)
41 종합건설업	4,248(3.05)	-	-	-
42 전문직별 공사업	104(0.07)	-	-	-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191(0.14)	-	-	-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7,405(5.32)	96(9.00)	103(9.23)	103(9.16)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2,884(2.07)	25(2.32)	26(2.32)	26(2.31)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3,714(2.67)	18(1.7)	16(1.44)	16(1.42)
50 수상 운송업	138(0.10)	-	-	-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2,975(2.14)	6(0.56)	6(0.50)	6(0.50)
55 숙박업	1,268(0.91)	77(7.18)	57(5.13)	57(5.04)
56 음식점 및 주점업	6,198(4.45)	96(8.97)	85(7.63)	85(7.57)
58 출판업	3,912(2.81)	38(3.58)	48(4.30)	48(4.28)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222(0.16)	1(0.05)	1(0.05)	1(0.05)
60 방송업	17(0.01)	5(0.50)	7(0.59)	7(0.58)
61 우편 및 통신업	990(0.71)	2(0.18)	4(0.32)	4(0.33)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488(0.35)	10(0.96)	11(1.02)	11(1.02)
63 정보서비스업	773(0.55)	16(1.47)	17(1.51)	17(1.50)
71 전문 서비스업	2,832(2.03)	6(0.55)	8(0.72)	8(0.71)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	2,634(1.89)	13(1.20)	13(1.21)	14(1.20)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92(0.28)	3(0.24)	3(0.24)	3(0.24)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379(5.30)	12(1.16)	13(1.14)	13(1.15)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6,820(4.90)	139(12.96)	137(12.26)	135(11.97)
86 보건업	10,522(7.56)	9(0.88)	13(1.19)	14(1.21)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32,621(23.42)	223(20.89)	280(25.15)	287(25.44)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83(0.63)	-	-	-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72(0.70)	127(11.89)	112(10.02)	112(9.92)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403(0.29)	-	-	-

※ 주 : () 안의 수치는 전체 대비 각각의 비중임

- 직종별 양성훈련 수요(KECO)

- (중분류 기준) 2023년 기준으로 경영·행정·사무직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영업·판매직, 돌봄 서비스직의 순서로, 이들 3개 직업은 각각 100명 이상의 양성훈련 수요 규모를 기록함
- 또한 다음은 사회복지·종교직과 음식 서비스직에 대한 양성훈련 수요 규모도 7%대로, 제주도 전체 양성훈련 수요의 57.5%가 5개 직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한편, 전국 분포와 비교하면,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운전·운송직, 식품 가공·생산직의 경우도 제주지역에서는 5%대의 비중을 기록하여 전국 비중 수준보다 높게 나타남
- (소분류 기준) 2023년 기준으로 136개 직업 중 33.1%에 해당하는 45개 직업에서 양성훈련 수요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양성훈련 수요 상위 15개 직업에서 전체 양성훈련 수요의 75%를 차지함
- 돌봄 서비스 종사자가 137명으로 12.3%의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다음으로 판매 종사자 대상 양성훈련 수요는 106명으로 9.5% 비중을 보임
- 이외에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소프트웨어 개발자,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경호·보안 종사자,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보건·의료 종사자, 식당 서비스원, 식품 가공 기능원,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 주방장 및 조리사,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의 순서로 양성훈련 수요 규모가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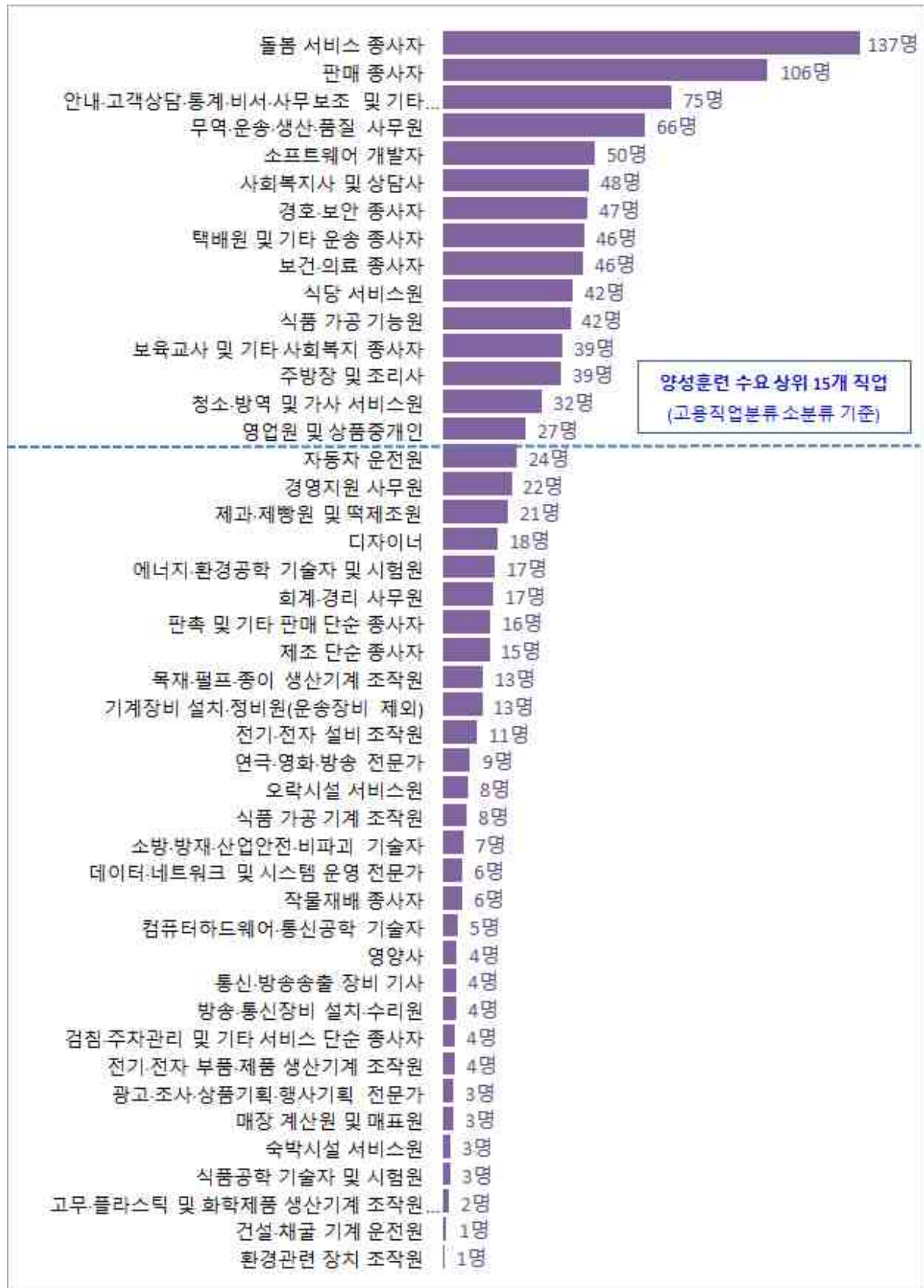
<표 2-1-9> 직업 중분류별 양성훈련 수요 추정 결과

(단위: 명, %)

구 분	전국	제주도		
	2023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체	139,267(100.00)	1,069(100.00)	1,114(100.00)	1,128(100.00)
01 관리직(임원·부서장)	265(0.19)	-	-	-
02 경영·행정·사무직	13,191(9.47)	180(16.83)	183(16.45)	185(16.40)
03 금융·보험직	24(0.02)	-	-	-
11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	-	-	-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857(0.62)	-	-	-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3,172(2.28)	63(5.86)	65(5.87)	66(5.87)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325(0.95)	-	-	-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2,516(1.81)	25(2.35)	26(2.34)	26(2.34)
21 교육직	228(0.16)	-	-	-
22 법률직	307(0.22)	-	-	-
23 사회복지·종교직	12,618(9.06)	84(7.89)	87(7.80)	88(7.77)
24 경찰·소방·교도직	-	-	-	-
25 군인	-	-	-	-
30 보건·의료직	8,257(5.93)	48(4.45)	50(4.50)	51(4.51)
41 예술·디자인·방송직	2,324(1.67)	25(2.35)	27(2.39)	27(2.41)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488(0.35)	-	-	-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58(0.04)	-	-	-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1,158(0.83)	10(0.92)	11(0.95)	11(0.96)
53 음식 서비스직	7,025(5.04)	77(7.17)	81(7.26)	82(7.30)
54 경호·경비직	2,895(2.08)	46(4.29)	47(4.26)	48(4.25)
55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15,178(10.90)	129(12.08)	137(12.26)	139(12.30)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9,087(6.53)	34(3.16)	36(3.24)	37(3.27)
61 영업·판매직	7,646(5.49)	145(13.55)	152(13.67)	154(13.66)
62 운전·운송직	7,811(5.61)	66(6.21)	70(6.30)	71(6.30)
70 건설·채굴직	2,850(2.05)	1(0.11)	1(0.11)	1(0.11)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6,218(4.46)	13(1.18)	13(1.15)	13(1.14)
82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5,419(3.89)	-	-	-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6,527(4.69)	14(1.35)	15(1.35)	15(1.34)
84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724(0.52)	5(0.42)	4(0.39)	4(0.38)
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4,058(2.91)	3(0.26)	3(0.23)	3(0.23)
86 섬유·의복 생산직	784(0.56)	-	-	-
87 식품 가공·생산직	1,939(1.39)	69(6.41)	71(6.37)	72(6.36)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959(0.69)	13(1.19)	13(1.18)	13(1.17)
89 제조 단순직	13,196(9.48)	15(1.38)	15(1.37)	15(1.36)
90 농림어업직	165(0.12)	6(0.57)	6(0.56)	6(0.56)

※ 주 : () 안의 수치는 해당 지역별 전체 대비 각각의 비중임

<그림 2-1-2> 직업 소분류별 2023년 양성훈련 수요 추정 결과



○ 향상훈련 수요

- 제주도 지역의 향상훈련 수요는 2022년 기준으로 12,297명으로 추정되며, 연도별로는 2023년에는 전년대비 2.7% 증가한 12,628명, 2024년에는 1.8% 증가한 12,860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전국의 향상훈련 수요는 2022년 기준으로 총 727,851명으로 같은 기간 제주지역이 차지하는 향상훈련 수요 규모는 1.69% 비중으로 나타남. 연도별 비중을 보면, 2023년 1.71%, 2024년 1.72%로 소폭 상승하는 패턴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그림 2-1-3> 제주지역 향상훈련 수요 추정 결과



- 산업별 향상훈련 수요(KSIC)
 -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전체 향상훈련 수요 중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숙박업, 종합건설업, 보건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음식점 및 주점업의 순서로 각각 1천 명 이상이 발생하여, 전체 향상훈련 수요의 2/3를 차지함
 - 반대로 10~33번까지의 제조업에서의 향상훈련 수요는 전체 향상훈련 수요의 500명 수준으로 4.1%의 낮은 비중을 기록함
 - 전국의 산업별 분포와 비교하면, 위의 향상훈련 수요 규모가 많은 상위 7개 산업 중 숙박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음식점 및 주점업에서는 전국 수준에서의 비중에 비해 2배 이상의 큰 비중을 보였고, 반대로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수요 비중은 낮음

<표 2-1-10> 산업 중분류별 향상훈련 수요 추정 결과

(단위: 명, %)

구분	전국	제주도		
	2023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체	738,771(100.00)	12,297(100.00)	12,628(100.00)	12,860(100.00)
10 식료품 제조업	17,507(2.37)	220(1.79)	223(1.76)	226(1.76)
11 음료 제조업	1,196(0.16)	46(0.37)	46(0.37)	47(0.36)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6,415(0.87)	11(0.09)	11(0.08)	11(0.08)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2,605(0.35)	-	-	-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092(0.15)	-	-	-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2,572(0.35)	-	-	-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463(0.47)	100(0.81)	101(0.80)	101(0.79)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461(0.20)	2(0.02)	2(0.02)	2(0.01)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2,604(1.71)	-	-	-
21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671(0.36)	-	-	-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0,747(1.45)	10(0.08)	10(0.08)	10(0.08)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4,331(0.59)	53(0.43)	53(0.42)	54(0.42)
24 1차 금속 제조업	4,416(0.60)	-	-	-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1,651(2.93)	-	-	-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9,120(1.23)	7(0.06)	7(0.06)	7(0.05)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5,820(0.79)	60(0.49)	60(0.48)	61(0.47)
28 전기장비 제조업	6,396(0.87)	-	-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8,510(2.51)	-	-	-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7,365(3.70)	-	-	-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5,321(0.72)	-	-	-
32 가구 제조업	970(0.13)	-	-	-
33 기타 제품 제조업	1,672(0.23)	-	-	-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687(0.23)	-	-	-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248(0.30)	25(0.20)	26(0.20)	26(0.20)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908(0.12)	6(0.05)	6(0.05)	6(0.05)
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1,627(0.22)	10(0.08)	10(0.08)	10(0.08)
41 종합건설업	48,899(6.62)	1,402(11.40)	1,465(11.61)	1,475(11.47)
42 전문직별 공사업	769(0.10)	-	-	-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2,632(0.36)	-	-	-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36,479(4.94)	309(2.51)	312(2.47)	317(2.46)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8,621(1.17)	168(1.36)	169(1.34)	172(1.34)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27,559(3.73)	1,082(8.80)	1,116(8.84)	1,124(8.74)
50 수상 운송업	824(0.11)	27(0.22)	28(0.22)	28(0.22)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6,311(2.21)	55(0.44)	57(0.45)	57(0.44)
55 숙박업	6,293(0.85)	1,581(12.86)	1,642(13.00)	1,656(12.88)
56 음식점 및 주점업	15,036(2.04)	1,052(8.56)	1,097(8.69)	1,111(8.64)
58 출판업	24,185(3.27)	135(1.09)	135(1.07)	138(1.08)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935(0.26)	5(0.04)	5(0.04)	5(0.04)
60 방송업	340(0.05)	13(0.11)	13(0.10)	13(0.10)
61 우편 및 통신업	5,874(0.80)	-	-	-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037(0.14)	-	-	-
63 정보서비스업	2,035(0.28)	23(0.18)	23(0.18)	23(0.18)
71 전문 서비스업	19,067(2.58)	310(2.52)	310(2.45)	313(2.44)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	18,265(2.47)	195(1.58)	196(1.55)	198(1.54)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271(0.31)	1(0.01)	1(0.01)	1(0.01)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21,522(2.91)	822(6.69)	861(6.82)	897(6.98)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52,166(7.06)	566(4.61)	574(4.55)	580(4.51)
86 보건업	55,209(7.47)	1,076(8.75)	1,087(8.61)	1,137(8.84)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183,127(24.79)	1,985(16.14)	2,006(15.89)	2,068(16.08)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928(0.53)	97(0.79)	101(0.80)	104(0.81)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8,154(1.10)	756(6.15)	787(6.23)	793(6.17)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1,860(0.25)	89(0.72)	89(0.70)	90(0.70)

※ 주 : () 안의 수치는 전체 대비 각각의 비중임

- 직종별 향상훈련 수요(KECO)

- (중분류 기준) 2023년 기준으로 음식서비스직이 19.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영·행정 사무직, 보건·의료직, 운전·운송직, 사회복지·종교직, 건설·채굴직의 순서로, 이들 7개 직업은 각각 1천 명 이상의 향상훈련 수요 규모를 기록함
- 전국의 직업별 분포와 비교하면, 제주도 소재 사업체에서의 영업·판매직과 돌봄 서비스직, 기계 설치·정비·생산직에 대한 향상훈련 수요 비중은 절반 수준이며, 반대로 건설·채굴직의 경우는 제주도 소재 사업체에서의 향상훈련 수요 비중이 크게 높음
- (소분류 기준) 2023년 기준으로 136개 직업 중 69개 직업에서 향상훈련 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상위 30개 직업에서 전체 향상훈련 수요의 94.0%의 비중을, 상위 10개 직업으로 국한할 경우 65% 내외의 비중을 차지함
- 소분류별로는 주방장 및 조리사가 가장 많은 10.4%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식당 서비스원, 자동차 운전원에 대한 수요가 1천 명 이상을 기록함. 다음으로 경영지원 사무원, 간호사,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 돌봄 서비스 종사자,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의 수요는 500명 이상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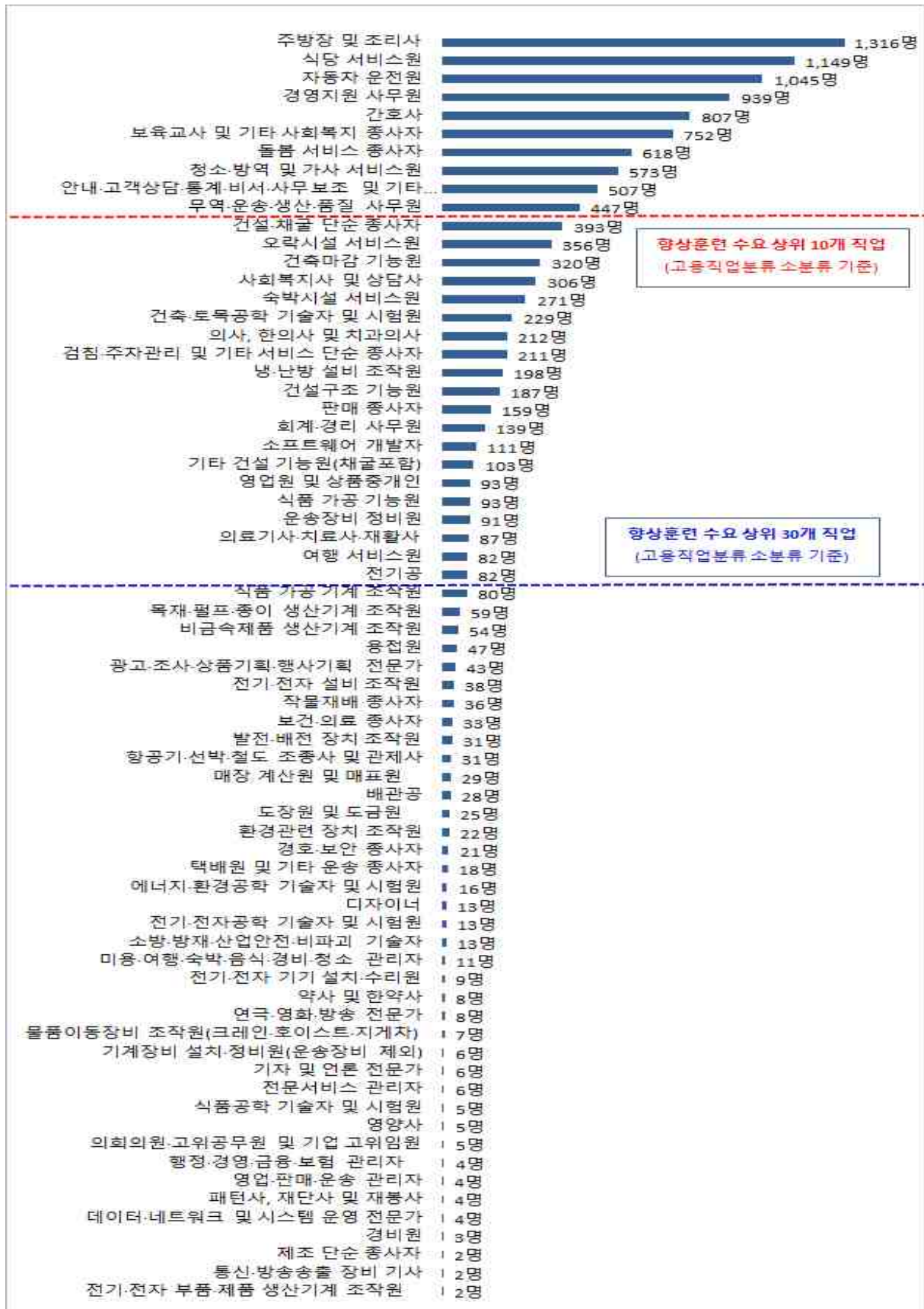
<표 2-1-11> 직업 중분류별 향상훈련 수요 추정 결과

(단위: 명, %)

구분	전국	제주도		
	2023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체	738,771(100.00)	12,297(100.00)	12,628(100.00)	12,860(100.00)
01 관리직(임원·부서장)	5,500(0.76)	29(0.24)	30(0.24)	30(0.23)
02 경영·행정·사무직	100,082(13.75)	2,032(16.53)	2,076(16.44)	2,104(16.36)
03 금융·보험직	450(0.06)	-	-	-
11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216(0.03)	-	-	-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1,258(0.17)	-	-	-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23,373(3.21)	113(0.92)	116(0.92)	119(0.93)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24,026(3.30)	224(1.82)	229(1.81)	232(1.80)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22,998(3.16)	47(0.38)	48(0.38)	49(0.38)
21 교육직	3,468(0.48)	-	-	-
22 법률직	2,590(0.36)	-	-	-
23 사회복지·종교직	87,734(12.05)	1,031(8.39)	1,058(8.38)	1,077(8.37)
24 경찰·소방·교도직	-	-	-	-
25 군인	-	-	-	-
30 보건·의료직	53,771(7.39)	1,132(9.21)	1,152(9.12)	1,162(9.04)
41 예술·디자인·방송직	8,739(1.20)	26(0.21)	27(0.21)	27(0.21)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1,648(0.23)	-	-	-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310(0.04)	-	-	-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3,873(0.53)	685(5.57)	710(5.62)	729(5.67)
53 음식 서비스직	18,075(2.48)	2,379(19.35)	2,465(19.52)	2,531(19.68)
54 경호·경비직	17,308(2.38)	24(0.19)	24(0.19)	25(0.19)
55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72,903(10.02)	599(4.87)	618(4.89)	631(4.91)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32,725(4.50)	754(6.13)	784(6.21)	808(6.29)
61 영업·판매직	42,776(5.88)	276(2.24)	281(2.23)	285(2.21)
62 운전·운송직	42,064(5.78)	1,078(8.76)	1,101(8.72)	1,115(8.67)
70 건설·채굴직	15,275(2.10)	1,010(8.22)	1,031(8.17)	1,044(8.12)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37,441(5.14)	287(2.33)	295(2.34)	302(2.35)
82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21,974(3.02)	124(1.01)	126(1.00)	127(0.99)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19,006(2.61)	158(1.29)	161(1.28)	163(1.27)
84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2,823(0.39)	-	-	-
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16,946(2.33)	22(0.18)	22(0.18)	22(0.17)
86 섬유·의복 생산직	5,123(0.70)	4(0.03)	4(0.03)	4(0.03)
87 식품 가공·생산직	10,660(1.46)	169(1.37)	173(1.37)	176(1.37)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2,954(0.41)	58(0.47)	59(0.47)	59(0.46)
89 제조 단순직	28,252(3.88)	2(0.02)	2(0.02)	2(0.02)
90 농림어업직	1,508(0.21)	35(0.28)	36(0.29)	37(0.29)

※ 주 : () 안의 수치는 해당 지역별 전체 대비 각각의 비중임

<그림 2-1-4> 직업 소분류별 2023년 향상훈련 수요 추정 결과



□ 기초 수요조사 결과 시사점(보완 내용 등)

○ 인력수요 조사 결과 요약

- 2021년 말 기준으로 제주도 소재 5인 이상 전체 사업체 중 한국표준산업분류 49개 중분류 산업에 포함되는 사업체에서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는 총 81,648명으로, 전국 기준 0.9% 비중을 기록
- 2021년 1년 동안 제주도 소재 조사대상 사업체에서는 11,127명이 퇴직하였고, 사업체에서는 13,863명을 구인하여 이중 96.9%에 해당하는 13,435명을 채용
- 제주도 소재 사업체는 2022년 1년 동안 8,037명을 채용할 예정으로 조사. 이는 전국 대비 1.3%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채용인원 비중에 비해 커, 향후 제주도의 인력 수요는 전국 평균보다 확대 예상
- 제주도의 저장(stock) 및 유량(flow) 관점의 인력수요 현황을 지역별로 구분하면, 제주시 소재 사업체에 전체 인력의 75~80% 내외 비중으로, 서귀포시 소재 사업체에 나머지 20~25%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2-1-12> 제주지역의 지역별 인력수요 총괄: 전국과 비교

(단위: 명, %)

구분	전국 (N)	제주도			비중 (J/N)
		전체 (J)	제주시	서귀포시	
현재인원	9,262,544	81,648 [100.0]	63,623 [77.9]	18,025 [22.1]	0.9
퇴직인원	1,212,034	11,127 [100.0]	8,726 [78.4]	2,401 [21.6]	0.9
(퇴직률)	(13.1)	(13.6)	(13.7)	(13.3)	-
근속년수 1년 미만 퇴직인원	486,894	4,719 [100.0]	3,891 [82.4]	828 [17.6]	1.0
(근속년수 1년 미만 퇴직인원 비중)	(40.2)	(42.4)	(44.6)	(34.5)	-
구인인원	1,338,495	13,863 [100.0]	10,565 [76.2]	3,298 [23.8]	1.0
채용인원	1,275,650	13,435 [100.0]	10,181 [75.8]	3,254 [24.2]	1.1
(채용률)	(13.8)	(16.5)	(16.0)	(18.1)	-
미충원인원	114,727	1,045 [100.0]	826 [79.1]	218 [20.9]	0.9
(미충원률)	(8.6)	(7.5)	(7.8)	(6.6)	-
2022년 1년간 채용예정인원	634,419	8,037 [100.0]	5,961 [74.2]	2,076 [25.8]	1.3

※ 주 : [] 안의 수치는 제주도 전체 대비 지역별 각각의 비중임

- 산업 중분류별로는 조사대상 총 49개 산업 중 10개 산업에서 인력수요 규모의 상위 5순위를 차지함

- 제주도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인력수요 규모 및 신규인력의 유출입이 가장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미충원인원 역시도 가장 많아 인력 미스매치도 가장 크게 발생하고 있고, 채용예정인원도 가장 많아 미래 인력수요에 있어서도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됨
-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는 인력 규모 및 유출입에 있어서는 크지 않으나 미충원 인원 규모로 파악한 미스매치는 다른 산업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남

<표 2-1-13> 산업 중분류별 인력수요 규모 상위 5순위 리스트

구 분	현재 인원	퇴직 인원	근속 1년 미만 퇴직인원	구인 인원	채용 인원	미충원 인원	채용예정 인원
10 식료품 제조업						2	
41 종합 건설업	2			5	5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4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5	5	5				
55 숙박업	4			4	4		4
56 음식점 및 주점업		2	2	2	2	3	3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3			4	2
86 보건업	3	4		3	3	5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1	1	1	1	1	1	1
91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3					5

- 직업 중분류별로는 총 35개 직업 중 8개 직업에서 인력수요 규모의 상위 5순위를 모두 차지하고 있어 쏠림현상이 발생함
- 경영·행정·사무직과 음식 서비스직에서 인력수요 및 유출입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음식 서비스직에서는 퇴직 및 채용이 가장 활발하게 발생하는 산업이며, 채용예정인원 규모도 가장 커 향후 인력 수요도 커질 것으로 전망됨
- 보건·의료직은 인력 유출입은 상위 순위에 들지는 못하나 미충원인원 규모가 커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는 산업으로 나타남

<표 2-1-14> 직업 중분류별 인력수요 규모 상위 5순위 리스트

구 분	현재 인원	퇴직 인원	근속 1년 미만 퇴직인원	구인 인원	채용 인원	미충원 인원	채용예정 인원
02 경영·행정·사무직	1	3		2	2	1	3
23 사회복지·종교직	3		5	3	3	2	4
30 보건·의료직	5					4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5
53 음식 서비스직	4	1	1	1	1	3	1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5	2	5		5	2
61 영업·판매직		4	3		5		
62 운전·운송직	2	2	4	4	4		

- 사업체규모별로는 주로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인력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남
- 5~9인 및 10~29인 규모에서 인력 규모 및 유출입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사업체규모가 커질수록 인력 유출입 규모는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100~299인의 중견 규모 사업체의 경우 인력 규모 및 유출입, 미스매치, 그리고 2023년 채용예정규모도 가장 낮아 타 규모에 비해 인력수요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됨

<표 2-1-15> 사업체규모별 인력수요 규모 상위 5순위 리스트

구 분	현재 인원	퇴직 인원	근속 1년 미만 퇴직인원	구인 인원	채용 인원	미충원 인원	채용예정 인원
5~9인	2	2	1	1	1	2	1
10~29인	1	1	2	2	2	3	2
30~99인	3	3	3	3	3	1	4
100~299인	5	5	5	5	5	5	5
300인 이상	4	4	4	4	4	4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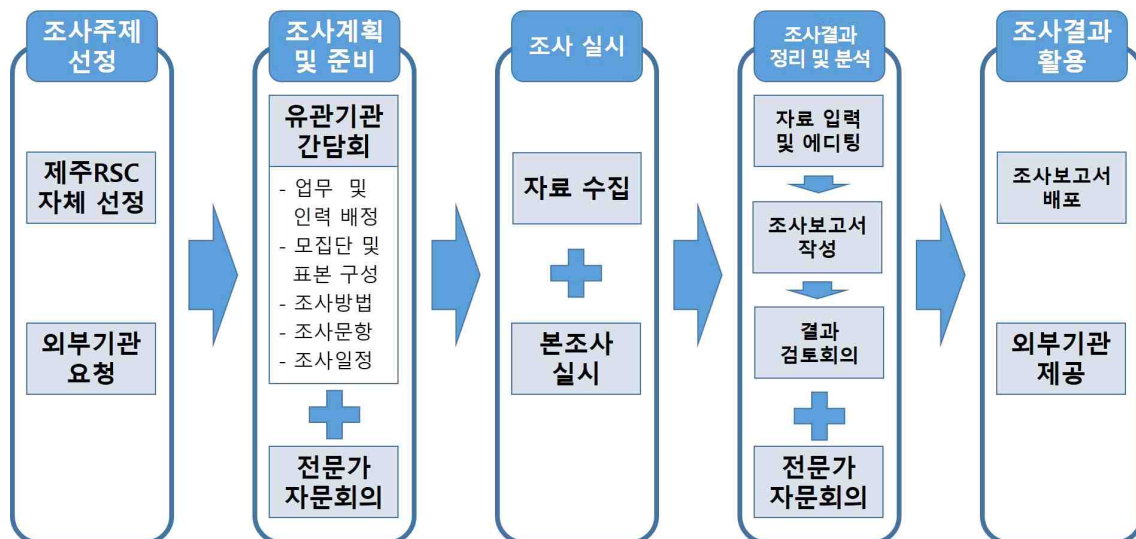
1.2 심층조사 분석 결과

□ 심층조사 개요

○ 심층조사 목적

- 제주지역 「기초 훈련수요조사」 분석결과의 확인 및 추가 검증
 - 업종별 과대공급, 과소공급 교육훈련 현황분석
 - 「기초 훈련수요조사」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데이터까지 확인하여 검증 진행
- 지역 일자리 이슈에 대한 빠른 대응
 - 지역 전략산업, 육성산업 등 추진 정책 및 일자리 현안에 대한 조사 진행
 - 이슈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

○ 심층조사 추진 체계



○ 심층조사 결과 분석 체계

- 조사대상 선정
 - 「기초 훈련수요조사」 결과 등 인력수급 데이터에 기반한 조사대상 및 업종 선정
 - 지역 주요 정책 및 현안에 기반한 조사대상 업종 선정
- 조사방법 : 핵심그룹 대상 설문조사(이메일, FAX, 온라인 등), FGI 등 병행
- 조사문항
 - 인력 및 훈련수요 관련
 - 1) 업종별 시장환경 및 인력수급 방법
 - 2) 양성훈련 및 향상훈련 세부 수요
 - 3) 스킬 미스매치 측정을 위한 사업주 및 종사자 조사
 - 인력 및 훈련공급 관련
 - 1) 최근 지역 내 훈련시장 및 훈련수급 동향 파악
 - 2) 지역 내 우선적으로 필요한 훈련분야
 - 3) 지역 내 훈련시장 개선방향 파악
- 분석방법
 - 2022년 제주지역 「기초 훈련수요조사」 결과와의 비교 분석
 - 인력 및 훈련수급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 전문가를 활용한 FGI 진행 및 내용 분석
 - SPSS 등 통계프로그램 활용

□ 2022년 심층조사 결과

○ 2022년 실시현황

구분	조사대상	표본규모	조사방법	조사기간
정량조사	제주지역 전세버스 운수사업체	20개 기업	설문조사	2022. 3. 14. ~ 3. 21.
정량조사 정성조사	제주지역 바이오산업 관련 사업체	13개 기업	설문조사	2022. 5. 25. ~ 5. 31.
		3개 기업	FGI	2022. 6. 20.
정량조사	제주지역 3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	457명	설문조사	2022. 8. 16. ~ 8. 23.
정성조사	도매 및 상품중개업	5개 기업	FGI	2022. 10. 24.
정성조사	사업서비스업	5개 기업	FGI	2022. 10. 25.
정성조사	사회복지서비스업	6개 기업	FGI	2022. 10. 25.
정성조사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6개 기업	FGI	2022. 10. 26.
정성조사	수리업	5개 기업	FGI	2022. 10. 26.
정성조사	정보통신서비스업	5개 기업	FGI	2022. 10. 27.
정량조사	「2022 도민행복 일자리박람회」 참여기업	39개 기업	설문조사	2022. 10. 28.

□ 최근 3년간 심층 수요조사 비교분석

○ 2020년 실시현황 및 개선사항

구분	조사대상	표본규모	조사방법	조사기간
정량조사	제주지역 관광업종 조사자	19개 기업	설문조사	2020. 2. 28. ~ 3. 13.
정량조사	서귀포지역 여성구직자	167명	설문조사	2020. 6. 8. ~ 9. 29.
정량조사	온택트청년드림취업박람회 기업/참여자	기업 28개 청년 136명	설문조사	2020. 9. 18. ~ 9. 22.
정성조사	청정헬스푸드산업	4개 기업	FGI	2020. 11. 09.
정성조사	스마트그리드산업	5개 기업	FGI	2020. 11. 10.
정성조사	코로나19 피해업종	6개 기업	FGI	2020. 11. 10.
정성조사	코로나19 수혜업종	4개 기업	FGI	2020. 11. 11.
정성조사	지능형관광컨텐츠 산업	5개 기업	FGI	2020. 11. 11.
정량조사	온오프라인도민행복일자리박람회 기업/참여자	기업 6개 도민 91명	설문조사	2020. 11. 30. ~ 12. 4.

- 수시수요조사에 구직자 조사 포함

- 도내 취업박람회 참여자 대상 취업의지 및 지역기업 인식조사 진행
-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주관 경력단절여성취업박람회 참여 구직자 조사 진행

○2021년 실시현황 및 개선사항

구분	조사대상	표본규모	조사방법	조사기간
정성조사	카지노산업	3개 기업	FGI	2021. 6. 4.
정량조사	제주지역 전략산업 관련 기업	60개 기업	설문조사	2021. 7. 12. ~ 7. 16.
정성조사	카지노산업 관련 기업 인사담당자	9개 기업 11명	FGI	2021. 10. 21. ~ 10. 22.
정성조사	음식료제조업	5개 기업	FGI	2021. 9. 28.
정성조사	운송서비스업	6개 기업	FGI	2021. 9. 29.
정성조사	숙박업	7개 기업	FGI	2021. 9. 29.
정성조사	전문서비스업	6개 기업	FGI	2021. 9. 30.
정성조사	보건복지서비스업	6개 기업	FGI	2021. 9. 30.

- 지역내 인력현황 및 수요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른 업종별 FGI 실시

- 업종 선정기준 : 퇴직률, 1년미만 퇴직자비율, 채용률, 미충원인원분포, 향상훈련 수요 등 2020년도 제주RSC 인력 및 훈련수요·공급조사 데이터 기준으로 선정기준 3개 이상 해당되는 상위 5개 업종

[FGI업종 선정기준]

구 분	근로자 현원	퇴직률 분포	퇴직인원중 1년미만	채용률	구인대비 채용비율	미충원 인원분포	채용예정 인원분포	향상수요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인원(명)	비율(%)
전 체	100.00	15.1%	49.6	10.4	91.8	100.00	100.00	13375	100
10 음식료 제조업	4.82	11.3%	47.7	12.2	93.4	4.45	4.09	2211	16.53
13 섬유의복패혁 제조업	0.23	1.8%	-	1.8	66.7	0.22	0.25	5	0.04
16 목재펠트 제조업	0.33	9.5%	45.0	19.1	95.3	0.34	0.22	31	0.23
18 인쇄 및 복제업	0.21	6.0%	-	3.0	100.0	-	0.21	260	1.94
20 화학의약품플라스틱 제조업	0.94	12.6%	30.8	7.7	88.0	1.06	0.87	209	1.56
23 비금속 광물제조업	1.11	5.3%	37.9	6.8	90.6	0.83	0.39	148	1.11
25 금속가공/기타기계 제조업	1.04	9.9%	10.4	2.4	82.0	0.59	0.48	329	2.46
26 전자전자 제조업	0.58	8.5%	25.3	3.6	73.0	0.82	0.41	391	2.92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0.02	13.3%	100.0	0.0	0.0	-	0.04		0.00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05	0.0%	0.0	66.7	100.0	-	-		0.00
32 가구제조업	0.05	0.0%	0.0	0.0	0.0	-	-		0.00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0.15	4.1%	25.0	10.6	81.6	0.39	0.07	15	0.11
41 건설업	13.20	15.1%	53.1	7.9	95.6	5.08	12.42	830	6.21
19 운송서비스업	10.11	16.3%	37.6	6.5	94.9	3.76	8.52	1307	9.77
55 숙박업	7.44	21.5%	54.3	12.1	92.1	8.25	3.57	1248	9.33
56 음식점 및 주점업	8.90	21.6%	62.3	14.7	94.8	7.63	9.57	1640	12.26
58 문화서비스업	1.76	14.2%	40.2	8.2	90.0	1.69	2.08	160	1.20
61 정보통신서비스업	0.61	10.9%	15.6	6.9	89.5	0.53	0.32	102	0.76
71 전문서비스업	6.46	10.5%	40.4	5.2	70.9	14.69	6.23	720	5.38
74 사업서비스업	5.62	15.1%	52.1	11.1	81.0	15.59	7.44	271	2.03
86 보건복지서비스업	26.93	13.3%	45.8	10.7	95.7	13.66	31.78	2971	22.21
90 예술여가스포츠업	7.77	17.5%	59.3	19.7	93.0	12.33	10.01	381	2.85
95 수리업	1.67	11.8%	46.7	3.7	44.9	8.08	1.00	146	1.09
평 균	4.35	10.9%	39.50	10.46	78.83	4.55	4.35		4.35
검토기준	5% 이상	11% 이상	40% 이상	11% 이하	75% 이하	5% 이상	5% 이상		5% 이상

□ 2022년 심층조사 결과 시사점

○ 1차(제주지역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수요조사)

- 조사 배경

- 제주지역 '운송서비스업' 및 '운전·운송직' 중 전세버스업체·종사자의 경우 최근 코로나19를 비롯한 외부충격과 그에 따른 대내외적 관광형태 변화 등으로 경영 및 인력구조에 대한 뚜렷한 변화가 관찰되고 있어 해당 산업·직종 동향과 인력 및 훈련 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함

- 조사 결과

- (업종 특성 및 동향) 제주지역 전세버스는 타 지역에 비해 관광상품과 결합된 형태로 활용되는 비율이 높음. 그러한 점에서 단순히 장소적 이동이라는 기본적인 효용 이외에도 관광운송의 수요자로부터 안전성과 신속성이 중시되며, 관광성을 갖추기 위한 위락성(entertainment), 쾌락성(pleasure), 신기성(novelty) 등을 필요로 함. 하지만 2019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국제적인 바이러스 확산 및 국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 등으로 관광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제주지역 전세버스업종은 도내 운수업 중에서도 사업체 경영 여건 및 인력 현황에 대한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남
- (2021년 제주RSC 수급조사 결과 분석) 2020년 대비 2021년 제주지역 관광지표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도내 관광서비스업에 대해서도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운송서비스업과 운전·운송직에 대한 현재 및 미래 인력수요가 크게 증가함
- (사업체 견습(연수) 및 교육 실시현황) 설문조사 결과, 제주지역 전세버스 사업체에서는 신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대형버스를 통한 견습(연수) 실시 비중이 높았으며, 최근 1년 간 사업체 자체적으로 평일 8시간 미만 집체교육을 통한 교육을 운영(또는 참여)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안전운전'에 대한 비중이 많았으며, 제주지역 공동훈련센터에 대해서는 '친절서비스' 및 '응급처치' 분야 교육과정에 참여한 사업체들이 있었음
- (양성교육 수요 및 필요 교육항목) 「제주지역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양성과정」에 대해서는 과반수 사업체에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주요 교육항목 중에서는 '제주지역 현장교육 및 관광지 주행체험'과 '고객서비스 및 친절CS'에 대한 교육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양성과정 운영 시 제주지역 도로특성에 대한 맞춤형 교육으로 신규 운수종사자가 높은 운전숙련도를 갖출 수 있기를 희망하는 의견이 많았음

○ 2차(제주지역 바이오기업 대상 교육훈련 수요조사)

- 조사 배경

- 제주지역 제조업은 총부가가치 기준으로 전국평균 대비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 내에서도 1·3차 산업에 비해 그 비중이 작게 나타나는 업종임. 제주지역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낮은 데에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에서 기반한 물류비용 문제 및 관광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등이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음. 하지만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및 경제구조 변화 대응 차원에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제조업 육성 방안이 모색되어 왔으며, 그에 따라 제주의 청정자원을 활용한 청정바이오산업이 지역 주력사업으로 선정되어 기술연구 및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육성이 진행되어왔음
- 코로나19 영향과 관련하여 서비스업의 고용이 즉각적으로 감소한 데 반해, 제조업은 고용 감소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제주지역 바이오기업의 경우 관광산업에 연관성이 크고, 코로나19로 인해 인력 수급에 더욱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예측됨. 이와 관련하여 『2021년 제주지역 인력 및 훈련수요·공급조사』 결과에서도 인력현황 및 수요에 대한 변화가 코로나19 이전·이후로 달라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해당 산업·직종 동향과 인력 및 훈련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요구됨

- 조사 결과

- (업종 특성 및 동향) 제주지역 제조업은 1·3차 산업에 비해 비중은 작으나, 지자체를 중심으로 제주 청정원료를 활용한 식품 및 화장품 등 바이오산업에 대한 육성이 이루어져 왔음.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및 소비 제약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제조 인력에 많은 변동이 발생했으며, 제주지역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인력수급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특히 제조인력 부족 현상에 대해 “인력 부족률이 높은 직종들은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고 업무 강도에 비해 임금이 적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보다 심층적인 조사가 요구되는 상황임
- (2021년 제주RSC 수급조사 결과 분석) 『2021년 제주지역 인력 및 훈련수요·공급조사』에 따르면 바이오산업 관련 식품 및 화학분야 종사자 및 인력 유출입 규모가 감소하였으나, 제조 단순직의 경우 이전년도 대비 종사자 및 인력 유출입 규모가 매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바이오산업 관련 산업별·직종별 미충원인원이 이전에 비해 많이 증가하면서 인력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향후 경기회복 전망에 따라 제조업 관련 채용예정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숙련인력 확보를 위한 훈련공급 대책 마련이 조기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사업체 인력 현황)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응답 사업체에서 부족인원이 발생함에 따라 채용예정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연구직과 기타직에 대해서는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다’는 사유로, 생산직에 대해서는 ‘통근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는 사유로 미충원인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됨
- (사업체 교육실시 현황) 최근 1년 간 재직근로자 교육훈련 실시 현황에 대해서는,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외부위탁을 통해 평일 8시간 미만 집체교육을 운영(또는 참여)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위생 및 HACCP’에 대한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필요 교육항목) 제주지역 바이오기업 대상 직무별 교육필요도에 대해 양성훈련 향상훈련 모두 ‘연구개발’ 및 ‘생산관리’분야에 대해 높은 필요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세부 교육항목으로 볼 때 양성훈련에서는 ‘제품품질관리’, 향상훈련에서는 ‘생산관리(생산·시설관리, 구매조달)’ 필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정성조사 결과)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는 품질관리, 생산관리보다는 기획사무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제주지역 제조업 특성이 반영된 융합기획 교육이 개설되기를 희망함. 또한 HACCP 팀장교육에 대한 정기적인 수요도 확인됨에 따라 해당 교육의 도내 정기공급이 개설될 필요가 있음

○ 3차(제주지역 대학생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일자리환경 인식조사)

- 조사 배경

- 최근 수도권 인구 과밀화와 지방인구소멸 문제가 공존하는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청년유출을 비롯한 청년인구 감소세가 심각해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제주지역에서는 매년 전체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년인구는 감소하고 있음. 또한 코로나19 영향을 포함하여 대내외 경제여건이 불안해짐에 따라 청년 취업자 및 고용률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구직을 단념한 이른바 ‘니트족’이 지속 증가하는 등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인적자본 축적이 훼손되고 비효율적인 노동인력이 배치가 고착되는 등 지역경제 차원의 상당한 손실로 이루어질 수 있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따라서 이러한 청년인구 감소 및 취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년층의 구직성향과 도내기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상황임
- 정부 및 지역자치단체에서는 청년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민선 8기 제주도정에서는 ‘제주형 청년보장제’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며 청년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기반 조성 등을 진행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책의 대상이 되는 청년층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며, 특히 학교 졸업 이후 사회로의 진입 과정에서 실태를 파악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지역 내에서도 「제주도민 일자리실태조사»,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등의 조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구직 시기를 앞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유의미할 것으로 예상됨

- 조사 결과

- (제주지역 청년고용 동향) 최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사회에서는 청년 유출로 인한 청년인구 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청년고용이 저하되어 산업 기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제주지역에서도 청년인구 감소 및 고용 저하 문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그러나 외부충격에 취약한 관광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와 타 지역 대비 중견급 이상 기업 수가 매우 적다는 문제 등으로 청년층의 수요에 맞는 일자리를 공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며,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대응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2021년 제주RSC 수급조사 결과 분석) 『2021년 제주지역 인력 및 훈련수요·공급조사』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제주지역 전체 생산가능인구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청년층의 인구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도 전국평균 대비 낮은 수준으로 확인됨. 2018~2019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에서는 해당 시기 대학졸업자의 제주지역 순유입 인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이, 직종별로는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과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의 유출인력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기존 제주지역 청년층 대상 조사 결과 요약) 기존 제주지역 청년층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들을 살펴보면, 도내 취업 희망에 대한 주요 사유는 '지금까지 살던 곳이어서/가족이 살고 있어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반면, 도외 지역에 대해서는 수도권 희망 비중이 매우 높으며, 그에 대한 사유로는 '제주를 벗어나고 싶어서'나 '다른 지역 생활기반이 좋아서' 등으로 나타남. 직업 선택 시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적성 및 전공'과의 일치 여부가, 직장 선택 시에는 '연봉 및 복리후생 수준' 등 채용/근로조건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희망직장 유형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냄
- (구직성향 및 구직활동 관련) 본 조사 결과를 포함한 제주지역 청년층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 내용을 종합해보면, 청년층의 수도권 선호 현상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기에는 수도권 일자리의 양과 질이 가지는 비교우위적인 면과 함께 문화·교육 등 생활인프라의 차이도 결합되어 정주 여건으로서 일자리 선택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됨. 이와 관련하여 지역 내 일자리를 기준으로 보자면, 우선적으로는 청년층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직종의 일자리가 공급될 수 있어야 함. 그리고 이전까지는 직장 선택에 있어서 임금 수준 등의 근로 보상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산업 전반에 대한 신규 구인 규모가 대폭 감소했던 여파로 고용안전성이 더욱 중요해진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보장도 요구됨
- (도내기업 인식 관련) 제주지역 소재 선호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학 청년층의 인지도는 낮으나 취업 희망 정도는 그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따라서 지역 내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으로 고용수급에 대한 정보 미스매칭을 완화하고,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청년들에게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SNS(카카오톡 채널 등)와 대학 및 취업진로부서를 통한 접근으로 청년층의 정보 획득 경로에 맞는 홍보전략이 추진되어야 함
- (청년일자리정책 및 사업 인지, 참여 관련) 현재 대학 청년층의 청년일자리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참여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됨. 하지만 향후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참여 희망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졸업 이후 청

년층의 희망 직종에 대해 실무경험을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내기업을 활용하여 직무체험·인턴제도 등이 실시되는 것이 좋다고 봄. 또한, 학업기간 중에는 구직활동 병행이 다소 어렵다는 점도 고려하여, 졸업 시기 전후로 희망 기업 및 직무 탐색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과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것도 중요함. 그 외 각종 정책 및 사업에 대해서도 참여 필요성을 느낄 있는 방향으로 안내가 이루어져 청년층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4차(취업박람회 참여기업 대상 만족도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

- 조사 배경

-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고, 고용의 질을 높이하고자 도내 금융, 호텔, 관광 등 다양한 직종의 45개의 기업과 23개 기관 등이 참여하여 「2022 도민행복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함.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3년 만에 개최된 대면 일자리박람회라는 점에서, 지역 내 구인구직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조사 결과

- (경력유무별 채용예정인원) 「2022 도민행복 일자리박람회」 참여기업에 대한 채용예정인원은 경력직보다 신입직 비중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 이 중 호텔업, 카지노업을 중심으로 채용예정인원 규모가 크게 나타나는데, 지난 6월 무사증 및 국제선 취항 재개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한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음
- (양성훈련 및 향상훈련 수요) 참여기업 중 양성훈련 수요가 있는 기업이 향상훈련 수요가 있는 기업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상기 채용예정인원 규모와 같이 호텔업과 카지노업 종사자에 대한 양성훈련 및 향상훈련 수요가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또한 제조업 생산관리 직무에 대한 양성훈련 및 향상훈련 수요도 높은 것으로 파악됨

○ 5차(도매 및 상품중개업 정성조사)

- 산업 동향 및 인력 수급 관련

- 유통업종의 어려움 : 미수금 문제, 인력수급 문제, 대기업과의 경쟁에서의 어려움이 지속
- 현 상황에서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의 혁신은 필요하지 않은 편이며, 이미 업체별로 자체 ERP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으며, 회사 실정에 맞춰 사용하고 있는 상황임
- 인력 충원의 어려움 ① : 신규직원 구인의 어려움이 많음. 젊은 근로자들이 적응하지 못하거나 몸이 조금만 힘들어도 퇴사해버려서 또 다른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악순환이 연속되는 상황임. 이로 인해 인력이 충원되지 못할 때는 내부 직원들이 직접 해당 업무를 대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함
- 인력 충원의 어려움 ② : 워크넷, 오일장교차로, 사람인, 제주대학교 등 다양한 구인사이트를 통해 인력채용을 하고 있으나, 비교적 단순 업무인 배송 업무에 비해 총무 업무를 하는 전문인력 채용은 어려움. 구인 사이트를 통한 채용보다는 아는 사람을 통해 채용을 진행했을 때 만족도가 크며, 도외인력 채용 시 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으나 제주도가 물가는 높고 임금수준이 낮아 도외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 훈련수급 및 정책 방향 관련

- 전반적으로 산업 관련 훈련교육에 대한 정보도 없고, 업체와 근로자 모두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특히, 직원들의 업무 일정상 집체교육은 어려우며 대표적인 한두 명이 교육을 받아 전파교육하는 형태가 현실적으로 맞는 것으로 보임
- (식자재 유통업) 무거운 식자재를 옮길 때 사용하는 AI 시스템 등의 임대 및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낌
- 차량 운전 배송 업무 특성 상 안전교육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신입 직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CS교육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세무, 회계, 노무 등 회사 운영과 관련한 전문가 상담 및 지원 교육이 필요함

○ 6차(사업서비스업 정성조사)

- 산업 동향 및 인력 수급 관련

- 업종 전반적으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임. 여행업, 마이스산업, 아웃소싱(객실 정비 등) 업체 등은 현재는 호황이나 코로나 장기화로 산업 자체에 대한 불안감 및 고용불안정 등으로 인력수급이 어려움
- 노인일자리 창출 업체의 경우에는 노인들의 선호 일자리가 달라지면서 노인분들에게 제공하는 교육훈련의 종류라든가 제공 일자리 종류 선정 등에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고학력 퇴직 노인들을 위한 고도화된 일자리 및 직업훈련 교육제공이 필요함

- 훈련수급 및 정책 방향 관련

- (MICE 산업) 대학교와 연계하여 교양과목을 개설하거나 마이스 업계 관계자를 특강 강사로 초빙하여 실무교육 위주로 진행하고 있음. 해당 교육과정을 들은 학생들이 채용으로 연계된 케이스도 존재함
- (테크노파크) 공공기관으로 각 센터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학생들을 모집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디지털과 빅데이터 쪽의 수요가 많은 편임
- (아웃소싱 업체) 법정 의무교육만을 진행하고 있으며, 직무교육은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필요한 교육으로는 위험물 관리나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기계 설비와 같은 시설 관리와 관련된 교육이 제공되었으면 함
- (여행업) 진입장벽은 낮으나, 외국어 통역 안내사의 경우 자격증이 있더라도 배운 언어로만 업무가 가능한 상황임. 중국 사태 등 특정 국가 관광객이 없을 때에는 교육받은 언어나 자격증이 필요 없어지는 불안정성으로 인해 신규 가이드가 양성되지 못하는 상황임
- 도내에서 제공되는 훈련과정이 독창성이 없고 중복되는 것이 많다고 느껴짐. 또한 도내에서 훈련 교육과정이 없어 도외지역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음

○ 7차(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정성조사)

- 산업 동향 및 인력 수급 관련

- 인력풀 자체가 많지 않은 편이며, 같은 업체 내에서도 직무별로 인력 공급에 편차가 큼. 급여 등 근무 여건에 만족하지 못하는 신입, 중간직급의 근속률이 낮은 편임. 관광업의 경우 계절적 요인 등으로 고객 수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보충이 바로바로 되지 않아 직원들의 업무 과중이 높은 상황임
- (카지노업) 코로나를 거치면서 카지노 관련 학과들이 통폐합되며 인력공급이 줄었으며, 이에 대비하여 자격요건을 낮추고 자체적으로 교육아카데미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카지노업의 경우 처우가 높은 수준은 아니나 여전히 도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봄
- (골프장업) 파트별로 인력수급 정도에 차이가 있으며, 인력수급이 어려운 코스 관리의 경우 장비 도입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캐디의 경우 조건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 인력수급에 애로사항이 있음

- 훈련수급 및 정책 방향 관련

- 주로 법정 의무교육 위주로 진행하고 있으며, 산업별로 필요한 업무 상 직업보수교육을 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 중소기업 사정 상 교육훈련 과정에 한계가 있으므로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과정들이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
- 직장일을 병행하면서 교육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취업 전에 미리 교육을 받고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느낌
- 직무 관련 및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영역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었으면 함. (외국어 교육, CS 교육 및 필요 자격증 관련 교육, 시니어 및 이주여성을 위한 교육, IT 관련 인력 공급 및 교육 육성제도 등)
- 온라인 교육과정이 제공되고 이에 대한 활발한 홍보가 이루어졌으면 함

○ 8차(수리업 정성조사)

- 산업 동향 및 인력 수급 관련

- 제주지역 전기차 보급으로 인해 기존 공업사 등 수리업종에 여러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 정비 분야에서의 신규 인력 양성의 어려움이 많음. 업종 특성상 힘든 일이라는 인식과 업계의 낮은 대우 때문에 인력 양성이 충분히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신규로 들어온 젊은 인력들도 오래 남아 있지 않는 상황임

- 훈련수급 및 정책 방향 관련

- 젊은 취업자들에 대한 인성교육(직업의식에 대한 교육 등)과 해당 분야의 신규 인력 양성이 매우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훈련기관이 부족한 실정임. 훈련기관들이 많이 사라진 상태이며, 취업하는 젊은 인력들도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태도가 없어 운영상의 어려움이 큼
- 신기술 교육을 시키고 싶으나, 제주도에 교육과정이 없거나 시간대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간, 비용 등을 더 많이 지불해야 하는 기업의 애로사항이 있음. 이런 교육을 시키더라도 직원들이 정착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받고 경력을 쌓은 후 이직을 하다 보니 기업의 손해가 큰 편임
- 자격증을 따기 위한 이론 위주의 교육보다는 실무 위주의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다수였음. 훈련기관에서 자격증을 따기 위한 이론적 교육만을 실시하며, 현장 교육에서 사용하는 장비도 노후된 장비를 사용한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현재 수리 및 정비업종은 기존의 도제 방식의 시스템이 지속되기 어려운 현실이며, 이론을 바탕으로 현장실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 교육훈련 기관에서 현장실습 진행 시 기업에서 겪는 애로사항이 많은 편임. 업체 입장에서는 단기간 실습생을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실습생 관리 등 추가업무가 더해지는 상황임
- 현재 제주에 전기차가 도입되어 있는 상황이나, 기존의 제조업체에서 AS를 전담하고 신기술에 대한 공유가 공업사에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 AS를 맡았을 시 공업사의 부담감이 너무 커서 일반 공업사에서는 손을 대기 어려운 게 현실임
- 앞으로 정책적으로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의무 전환한다는 것은 정비업체에는 사실상 폐업과 마찬가지로인 상황으로,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과 도 자체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 9차(정보통신서비스업 정성조사)

- 산업 동향 및 인력 수급 관련

-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업이라 하더라도 세부업종 및 분야에 따라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거나, 성장을 하는 등 편차가 나타남.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개발자 직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력 수요가 있는 상황이며, 도내에 개발자를 위한 충분한 교육과정이 없어 개발자 유입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임

- 훈련수급 및 정책 방향 관련

- 교육훈련이 수요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편이며, 재직자들의 교육수요가 있으나 제주도에서는 개설되지 않아 도외로 가거나 포기하는 것이 현실임
- 실제 교육기관에서 인력양성(교육) 후 업체와 연계시켜줬으나 실적 위주로 단기 과정만을 수강한 인력이라 실제 업체에 정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음. 단기간의 훈련기관 실적쌓기용 인력양성보다는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충분한 기간 동안 진행되는 교육과정이 필요함
- 공공기관에서 제공되는 교육이 지나치게 루틴하고 주입식으로 이루어짐. 중요한 분야에 포커스를 맞춰 집중적으로 교육을 제공해줬으면 하는 바람임. 또한, 교육 이후에 취업과 연계되도록 후속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
- 재직자들의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며, 업종 특성상 업무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과정 제공을 희망함

○ 10차(사회복지서비스업 정성조사)

- 산업 동향 및 인력 수급 관련

- 사회복지업의 경우에는 교사, 생활지원사(요양사업), 요양보호사 등은 연단위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저시급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이직률이 높은 편임
- 다만,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는 타 직종에 비해 대부분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급여 문제보다는 업무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퇴사가 많은 편임. 종합복지관의 경우에는 타 시설에 비해 사회복지사에 대한 급여, 대우, 승진 등이 보장되면서 이직률은 높지 않은 편임
- 인력 충원의 어려움 ① : 연단위 계약으로 고용불안이 큰 편이며, 일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무리한 요구에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다수임. 또한, 큰 기관 위주의 지원으로 사회복지사들도 큰 기관에 몰리게 되면서 작은 기관의 경우에는 인력수급이 어려운 상황임
- 인력 충원의 어려움 ② : (특수교육교사 수급) 신규 사업이 새로 생기고 있으나 특수 인력의 경우 도내에서 인력양성이 되지 않고 있어 채용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

- 훈련수급 및 정책 방향 관련

- 도내 인력양성 과정이 없는 특수인력의 경우 온라인 교육 등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해당 인력에 대한 수요가 큰 기관에 집중되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도외지역의 온라인 과정 도입이 가장 현실적일 것으로 보임
- 다양한 영역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및 복지서비스 수혜자의 편의를 위한 기술적 지원 및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기대함. 노인 및 장애인 관련 영역에서는 어르신이나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기술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상담을 위주로 하는 영역에서는 챗봇과 같은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긴 하나 자체적인 시스템 도입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결혼 이주 여성 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기대함
- 현재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수 교육 등이 지나치게 많은 편으로, 교육을 일원화 시키고 실질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교육만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
- 사회복지 계열의 중간관리자급이 기관을 경영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도록 도외지역에 있는 것과 비슷한 중간관리자 교육제공이 필요함

2. 제주지역 인력 및 훈련공급 조사 분석 결과

□ 제주지역 인력 및 훈련공급 조사 분석 개요

○ 조사 분석 목적

- 제주지역 훈련수급분석에 필요한 인력 및 훈련공급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제주지역 노동시장권역의 분석, 신규인력 유출입 분석 및 제주지역 양성 및 향상훈련 실태를 분석함

○ 조사 분석 방법 및 내용

구 분	분석항목
「지역별 고용조사」	• 현 거주지와 현 직장소재지 응답값을 활용하여 거주지와 직장소재지를 각각 제주시, 서귀포시, 기타 지역으로 구분하여 인적 특성(성, 학력, 연령) 및 고용특성(종사상지위, 산업, 직업)별로 거주지와 직장소재지 간 이동(출퇴근 사례)을 살펴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의 대학소재지 변수와 현 직장 소재지 변수를 활용하였으며, 전체 표본 중 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역 간 유출입을 살펴보았으므로 조사시점의 미취업자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대학소재지 변수와 현 직장 소재지 변수에 대한 정보가 모두 존재하는 표본으로 제한하여 분석을 진행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 사업체 일반현황, 산업별·직업별 산업기술인력 현재 보유 인원(현원) 및 부족인원, 퇴사인력, 구인인력 및 채용인력, 채용예상인력 등
제주지역 양성훈련 및 향상훈련 공급 규모	• 훈련 유형별 훈련공급 규모 • 직종 중분류, 소분류별 훈련공급 규모

□ 제주지역 인력 및 훈련공급조사 분석 결과

○ 지역 인력 유출입 현황

- 「지역별 고용조사」 분석 결과

- 제주도의 지리적 위치로 인해 전체 분석대상 중 제주도(제주시, 서귀포시)에 거주하면서 기타지역으로 취업한 경우는 전체 제주지역 취업자의 0.2%로 큰 규모가 아니었으며, 기타지역 거주자 중 제주도에 직장을 둔 경우는 기타지역 전체 거주자의 0.0003%로 극히 소수인 것으로 나타남

<표 2-2-1> 성별 거주지와 사업체 소재지

(단위: 명, %)

성	거주지	사업체소재지							
		제주시		서귀포시		기타		계	
남성	제주시	139,704	93.7	8,771	5.9	644	0.4	149,120	100.0
	서귀포시	3,167	5.5	54,740	94.5	0	0.0	57,907	100.0
	기타	358	0.002	87	0.001	15,173,853	100.0	15,174,297	100.0
	계	143,229	0.9	63,598	0.4	15,174,497	98.7	15,381,324	100.0
여성	제주시	119,890	96.5	4,329	3.5	0	0.0	124,219	100.0
	서귀포시	1,747	3.4	50,095	96.6	0	0.0	51,842	100.0
	기타	530	0.0	0	0.0	11,282,098	100.0	11,282,628	100.0
	계	122,167	1.1	54,424	0.5	11,282,098	98.5	11,458,689	100.0
계	제주시	259,595	95.0	13,100	4.8	644	0.2	273,339	100.0
	서귀포시	4,914	4.5	104,835	95.5	0	0.0	109,749	100.0
	기타	888	0.003	87	0.0003	26,455,951	99.996	26,456,926	100.0
	계	265,396	1.0	118,022	0.4	26,456,595	98.6	26,840,014	100.0

※ 자료 : 통계청(2021), 『지역별 고용조사』

- 연령대별로 취업자의 거주지와 사업체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는 50세 이상 장년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제주시의 경우 장년층 취업자의 95.6%, 서귀포시의 경우 96.5%가 거주지와 동일지역에 소재한 직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2-2> 연령별 거주지와 사업체 소재지

(단위: 명, %)

구 분			사업체소재지							
			제주시		서귀포시		기타		계	
거주지	15~29세	제주시	32,697	95.5	1,534	4.5	0	0.0	34,231	100.0
		서귀포시	628	7.4	7,916	92.6	0	0.0	8,544	100.0
		기타	0	0.0	87	0.002	3,528,544	100.0	3,528,631	100.0
		계	33,325	0.9	9,537	0.3	3,528,544	98.8	3,571,406	100.0
	30~49세	제주시	110,803	94.1	6,550	5.6	346	0.3	117,699	100.0
		서귀포시	2,219	5.3	39,697	94.7	0	0.0	41,917	100.0
		기타	143	0.001	0	0.0	11,350,617	100.0	11,350,760	100.0
		계	113,165	1.0	46,248	0.4	11,350,963	98.6	11,510,376	100.0
	50세 이상	제주시	116,095	95.6	5,015	4.1	299	0.2	121,409	100.0
		서귀포시	2,066	3.5	57,222	96.5	0	0.0	59,288	100.0
		기타	745	0.006	0	0.0	11,576,789	100.0	11,577,534	100.0
		계	118,906	1.0	62,237	0.5	11,577,088	98.5	11,758,231	100.0
	계	제주시	259,595	95.0	13,100	4.8	644	0.2	273,339	100.0
		서귀포시	4,914	4.5	104,835	95.5	0	0.0	109,749	100.0
		기타	888	0.003	87	0.0003	26,455,951	100.0	26,456,926	100.0
		계	265,396	1.0	118,022	0.4	26,456,595	98.6	26,840,014	100.0

※ 자료 : 통계청(2021), 『지역별 고용조사』

-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로 거주지와 사업체 소재지를 살펴보면, 제주시 거주-제주시 직장의 비율이 임시일용직에서 가장 높았으며(96.6%), 비임금이 96.0%, 상용직이 93.8% 등의 순으로 나타남. 서귀포시 거주-서귀포시 직장의 비율의 경우에는 비임금이 98.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임시일용직 95.8%, 상용직 92.0%의 순으로 나타남

<표 2-2-3> 종사상 지위별 거주지와 사업체 소재지

(단위: 명, %)

구 분			사업체소재지							
			제주시		서귀포시		기타		계	
거주지	상용직	제주시	135,045	93.8	8,559	5.9	313	0.2	143,918	100.0
		서귀포시	3,238	8.0	36,995	92.0	0	0.0	40,232	100.0
		기타	501	0.0	0	0.0	15,064,177	100.0	15,064,678	100.0
		계	138,784	0.9	45,554	0.3	15,064,490	98.8	15,248,828	100.0
	임시일용직	제주시	48,416	96.6	1,356	2.7	331	0.7	50,102	100.0
		서귀포시	832	4.2	18,885	95.8	0	0.0	19,717	100.0
		기타	231	0.0	87	0.0	4,902,324	100.0	4,902,642	100.0
		계	49,479	1.0	20,328	0.4	4,902,654	98.6	4,972,461	100.0
	비임금	제주시	76,134	96.0	3,185	4.0	0	0.0	79,319	100.0
		서귀포시	845	1.7	48,955	98.3	0	0.0	49,800	100.0
		기타	155	0.0	0	0.0	6,489,450	100.0	6,489,606	100.0
		계	77,134	1.2	52,141	0.8	6,489,450	98.0	6,618,725	100.0
	계	제주시	259,595	95.0	13,100	4.8	644	0.2	273,339	100.0
		서귀포시	4,914	4.5	104,835	95.5	0	0.0	109,749	100.0
		기타	888	0.0	87	0.0	26,455,951	100.0	26,456,926	100.0
		계	265,396	1.0	118,022	0.4	26,456,595	98.6	26,840,014	100.0

※ 자료 : 통계청(2021), 『지역별 고용조사』

- 직종별로 취업자의 거주지와 사업체 소재지를 살펴보면, 생산직의 경우 다른 직종에 비해 거주지와 사업체 소재지가 일치하는 경우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2-4> 직업별 거주지와 사업체 소재지

(단위: 명, %)

구 분			사업체소재지							
			제주시		서귀포시		기타		계	
거주지	관리전문직	제주시	54,617	93.9	3,208	5.5	313	0.5	58,139	100.0
		서귀포시	1,256	9.3	12,191	90.7	0	0.0	13,447	100.0
		기타	374	0.0	0	0.0	5,987,601	100.0	5,987,976	100.0
		계	56,248	0.9	15,399	0.3	5,987,915	98.8	6,059,562	100.0
	사무·서비스직	제주시	106,775	95.0	5,668	5.0	0	0.0	112,443	100.0
		서귀포시	1,615	4.3	35,700	95.7	0	0.0	37,315	100.0
		기타	358	0.0	0	0.0	10,208,538	100.0	10,208,896	100.0
		계	108,748	1.0	41,368	0.4	10,208,538	98.6	10,358,654	100.0
	생산·노무직	제주시	98,203	95.6	4,224	4.1	331	0.3	102,758	100.0
		서귀포시	2,042	3.5	56,944	96.5	0	0.0	58,986	100.0
		기타	155	0.0	87	0.0	10,259,811	100.0	10,260,054	100.0
		계	100,401	1.0	61,255	0.6	10,260,142	98.4	10,421,798	100.0
	계	제주시	259,595	95.0	13,100	4.8	644	0.2	273,339	100.0
		서귀포시	4,914	4.5	104,835	95.5	0	0.0	109,749	100.0
		기타	888	0.003	87	0.0	26,455,951	100.0	26,456,926	100.0
		계	265,396	1.0	118,022	0.4	26,456,595	98.6	26,840,014	100.0

- ※ 주 : 한국표준직업분류(7차) 대분류 기준
관리전문직: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서비스직: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생산·노무직: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등
- ※ 자료 : 통계청(2021), 『지역별 고용조사』

- 산업별로 취업자의 거주지와 사업체 소재지를 살펴보면, 제주시에서 거주하는 서비스업·기타 종사자의 경우 제주시 지역 사업체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95.0%이고, 제조업의 경우 95.4%로 나타남. 한편 서귀포시 거주자의 경우 서비스업·기타 종사자는 대부분(95.7%)이 서귀포시에 위치한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반면, 제조업 종사자 중에서는 서귀포시에 위치한 사업체에 근무하는 비중이 86.6%이고, 제주시로 출퇴근하는 경우도 13.4%로 높은 편임

<표 2-2-5> 산업별 거주지와 사업체 소재지

(단위: 명, %)

구 분			사업체소재지							
			제주시		서귀포시		기타		계	
거주지	제조업	제주시	9,301	95.4	136	1.4	313	3.2	9,751	100.0
		서귀포시	234	13.4	1,506	86.6	0	0.0	1,740	100.0
		기타	155	0.0	0	0.0	4,291,099	100.0	4,291,255	100.0
		계	9,690	0.2	1,643	0.0	4,291,413	99.7	4,302,745	100.0
	서비스업·기타	제주시	250,294	95.0	12,964	4.9	331	0.1	263,589	100.0
		서귀포시	4,680	4.3	103,329	95.7	0	0.0	108,009	100.0
		기타	732	0.0	87	0.0	22,164,852	100.0	22,165,671	100.0
		계	255,706	1.1	116,380	0.5	22,165,183	98.3	22,537,269	100.0
	계	제주시	259,595	95.0	13,100	4.8	644	0.2	273,339	100.0
		서귀포시	4,914	4.5	104,835	95.5	0	0.0	109,749	100.0
		기타	888	0.0	87	0.0	26,455,951	100.0	26,456,926	100.0
		계	265,396	1.0	118,022	0.4	26,456,595	98.6	26,840,014	100.0

※ 주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대분류 기준

21개 대분류 항목 중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를 '서비스업·기타'로 재분류

※ 자료 : 통계청(2021), 『지역별 고용조사』

-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분석 결과

- 2019년 대학졸업자의 경우 제주지역 대학 졸업 후 제주지역의 직장에 취업한 경우는 1,732명(73.0%)이고, 제주지역 대학 졸업 후 기타지역으로의 취업은 639명(27.0%)으로 나타남
- 직전 연도와 제주지역 인력 유출입 현황을 비교하면, 조사 당시 직장 소재지가 제주인 경우는 2019년(2018년 대학졸업자)보다 2020년 조사(2019년 대학졸업자)에서 감소함

<표 2-2-6> 인력 유출입 현황 전체

(단위: 명, %)

구 분		현직장 소재지							
		2019년				2020년			
		제주		기타		제주		기타	
대학소재지	제주	2,626	73.5	948	26.5	1,732	73.0	639	27.0
	기타	1,828	0.5	359,142	99.5	1,130	0.4	318,786	99.6
전체		4,454		360,090		2,862		319,425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9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18GOMS)』, 『2020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19GOMS)』

- 대학 졸업 지역과 현 직장 소재지 간 인력 유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제주지역에서 기타지역으로 639명이 유출되었고, 제주지역으로 유입된 인원은 1,130명으로 총 491명의 순유입이 발생하여 직전 연도의 순유입(880명)에 비해 제주지역으로의 유입이 크게 감소함. 이는 제주지역에서 기타지역으로의 유출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기타지역에서 제주지역으로의 유입이 크게 감소한 것에 따른 결과임

<표 2-2-7> 인력 유출입 현황

(단위: 명)

구 분		현직장 소재지			
		2019년		2020년	
		제주	기타	제주	기타
대학소재지	제주		-880		-491
	기타	880		491	
전체		880	-880	491	-491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9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18GOMS)』, 『2020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19GOMS)』

- 제주로의 유입이 가장 많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230명이고, 해당 산업의 순유입도 143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전년도에 비해서는 크게 감소한 수치임. 제주지역에서의 순유출이 가장 많이 발생한 산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35명이 다른 지역으로 순유출되었으며, 전년도에는 해당 산업 유출인력이 전혀 없었으나 크게 증가함

<표 2-2-8> 산업별 인력 유출입 현황

(단위: 명)

구 분	현직장 소재지					
	2019년			2020년		
	제주로 유입	제주에서 유출	인력 유출입	제주로 유입	제주에서 유출	인력 유출입
농업, 임업 및 어업	13	0	13	0	0	0
광업	0	0	0	0	0	0
제조업	113	99	14	79	20	59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66	0	166	50	0	50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0	0	0	22	0	22
건설업	113	0	113	0	0	0
도매 및 소매업	55	0	55	111	146	-35
운수 및 창고업	129	108	22	94	0	94
숙박 및 음식점업	230	18	212	253	109	143
정보통신업	96	0	96	0	34	-34
금융 및 보험업	65	0	65	50	21	29
부동산업	0	0	0	0	0	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85	32	253	30	46	-1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63	77	-13	0	15	-15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5	100	-85	144	50	94
교육 서비스업	92	199	-107	47	72	-2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40	202	38	129	126	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4	64	10	80	0	8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76	49	27	0	0	0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0	0	0	0	0	0
국제 및 외국기관	0	0	0	0	0	0
전체	1,828	948	880	1,130	639	491

※ 주: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대분류 기준

합계는 현직장 산업 '모름/무응답'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9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18GOMS)』, 『2020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19GOMS)』

- 제주로의 유입이 가장 많은 직업은 ‘경영·사무·금융·보험직’이었으며, 순유입도 가장 많은 직업군이나, 전년에 비해 유입인원이 크게 감소하여, 순유출 인원이 다소 감소함. 제주지역에서의 유출이 가장 많은 직업은 ‘영업·판매·운전·운송직’으로 146명이 유출되었으며, 전년도에는 제주로의 유입만 있었던 반면, 제주로의 유입은 줄고 유출이 크게 증가하여 순유출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순유출 인원이 가장 많은 직업군에 해당됨

<표 2-2-9> 직업별 인력 유출입 현황

(단위: 명)

구 분	현직장 소재지					
	2019년			2020년		
	제주로 유입	제주에서 유출	인력 유출입	제주로 유입	제주에서 유출	인력 유출입
경영·사무·금융·보험직	610	156	455	401	69	332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154	41	113	144	36	108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177	263	-85	69	96	-27
보건·의료직	240	241	-2	259	138	121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48	154	-105	20	25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398	52	347	105	56	48
영업·판매·운전·운송직	91	0	91	40	146	-105
건설·채굴직	9	0	9	0	0	0
설치·정비·생산직	87	42	45	93	74	19
농림어업직	13	0	13	0	0	0
전체	1,828	948	880	1,130	639	491

※ 주: 한국고용직업분류(2018년) 대분류 기준. 합계는 현직장 직업 ‘모름/무응답’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9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18GOMS)』, 『2020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19GOMS)』

-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분석 결과

- 제주지역 산업기술인력의 산업별 현원 비중은 12대 주력산업이 전체의 53.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26.5%, 기타 서비스업이 10.8%의 순으로 나타남
- 제주지역 산업기술인력의 부족인원은 47명이고, 부족률은 1.5%로 나타났으며, 해당 부족인원은 전원 기타 서비스업 분야의 '보건업'에 해당하였음

<표 2-2-10> 제주지역 산업별 산업기술 인력 현황

(단위: 명, %)

구분			현원	(비중)	부족인원	(비중)	부족률
12 대 주 력 산 업	제조	기계	0	0.0	-	-	-
		디스플레이	0	0.0	-	-	-
		반도체	10	0.3	-	-	-
		바이오·헬스	35	1.2	-	-	-
		섬유	-	-	-	-	-
		자동차	-	-	-	-	-
		전자	72	2.4	-	-	-
		조선	-	-	-	-	-
		철강	-	-	-	-	-
	화학	0	0.0	-	-	-	
서비스	소프트웨어	1,308	43.6	-	-	-	
	IT비즈니스	163	5.4	-	-	-	
소 계(A)			1,588	53.0	-	-	-
기 타 제 조 업	10 식료품제조업		27	0.9	-	-	-
	11 음료제조업		25	0.8	-	-	-
	12 담배제조업		0	0.0	-	-	-
	15 가죽,가방및신발제조업		0	0.0	-	-	-
	16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가구제외		0	0.0	-	-	-
	17 펄프,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43	1.4	-	-	-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	0.0	-	-	-
	2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08	3.6	-	-	-
	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		0	0.0	-	-	-
	32 가구 제조업		0	0.0	-	-	-
33 기타 제품 제조업		0	0.0	-	-	-	
소 계(B)			203	6.8	-	-	-
소 계(C=A+B)			1,792	59.8	-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118	3.9	-	-	-
	71 전문서비스업		6	0.2	-	-	-
	72 건축기술,엔지니어링과학기술		670	22.4	-	-	-
	73 기타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0	0.0	-	-	-
	소 계(D)		794	26.5	-	-	-
영상제작, 통신 서비스업	59 영상/오디오제작 및 배급업		0	0.0	-	-	-
	61 우편 및 통신업		88	2.9	-	-	-
	소 계(E)		88	2.9	-	-	-
기타 서비스업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0	0.0	-	-	-
	76 임대업;부동산제외		50	1.7	-	-	-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1	0.0	-	-	-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	-	-	-	-
	85 교육 서비스업		8	0.3	-	-	-
	86 보건업		265	8.8	47	100.0	15.0
소 계(F)			324	10.8	47	100.0	12.6
전체(A+B+D+E+F)			2,998	100.0	47	100.0	1.5

※ 주 : 비중은 전체 대비 각각의 비중임

※ 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21), 『2021년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 제주지역 산업기술인력의 학력별 현원 비중은 학사가 60.8%(1,823명)으로 가장 높으며, 전문학사 14.3%, 석사 11.8% 등의 순으로 구성됨

<표 2-2-11> 제주지역 학력별 산업기술 인력 현황

(단위: 명, %)

구분	현원	(비중)	부족인원	(비중)	부족률
고졸	253	8.4	0	0.0	0.0
전문학사	430	14.3	10	21.7	2.4
학사	1,823	60.8	31	67.4	1.7
석사	354	11.8	5	10.9	1.4
박사	138	4.6	0	0.0	0.0
전체	2,998	100.0	46	100.0	1.5

※ 주 : 비중은 전체 대비 각각의 비중임

※ 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21), 『2021년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 제주지역 산업기술인력의 전공별 분포를 살펴보면, 공학계가 91.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비이공계 7.1%, 자연계 1.2%의 순으로 나타남

<표 2-2-12> 제주지역 전공별 산업기술 인력 현황

(단위: 명, %)

구분	현원	(비중)	부족인원	(비중)	부족률
비이공계	194	7.1	0	0.0	0.0
공학계	2,518	91.7	16	34.0	0.6
자연계	33	1.2	31	66.0	48.6
전체	2,745	100.0	47	100.0	1.7

※ 주 : 비중은 전체 대비 각각의 비중임

※ 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21), 『2021년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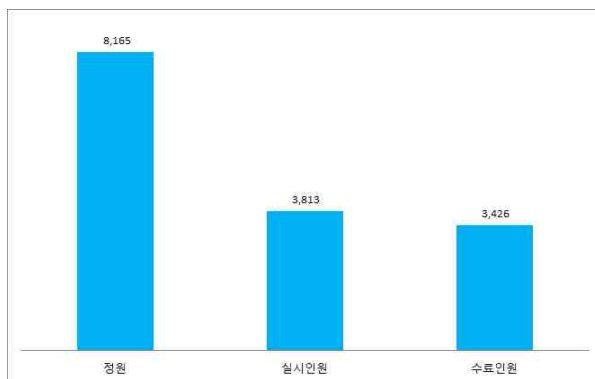
○ 지역 훈련공급 현황

- 제주지역 양성훈련 공급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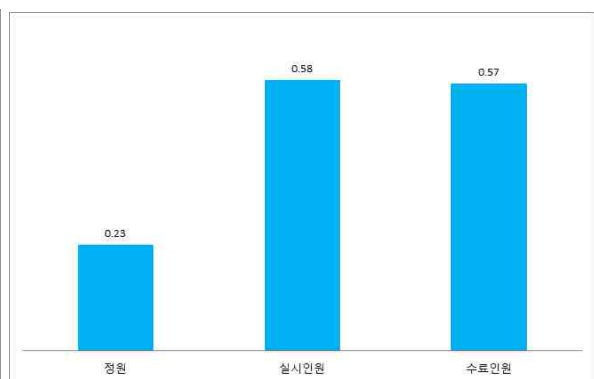
-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중분류(2-digit) 기준으로 2021년도에 제주지역에서 실시된 양성훈련의 종류는 16가지이며, 참여한 인원은 총 3,813명이고, 그 중 훈련을 수료한 인원은 3,426명으로 89.9%의 수료율을 보임
- 전국 대비 제주지역의 양성훈련 공급 비중을 살펴보면, 정원은 전국의 0.14%로 매우 낮은 편이었으며, 실시인원과 수료인원의 비중도 각각 0.58%와 0.57%로 낮은 편이었으나, 정원에 비해서는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2-1> 2021년 제주지역 양성훈련 공급현황 및 전국 대비 공급 비중

<제주지역 양성훈련 공급현황>



<전국 대비 제주지역 양성훈련 공급 비중>



※ 자료: 고용노동부, 『HRD-net』

- 제주지역 전체 양성훈련 정원은 8,165명이고, 실시인원은 3,813명으로 전체 모집률은 46.7%에 해당하였음
- 정원이 가장 많은 직종은 ‘음식 서비스직’으로 3,411명이었으며, 실제 훈련 실시인원도 해당 직종이 1,669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집률은 48.9%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원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임
- 모집률이 가장 높은 직종은 ‘보건·의료직’으로 85.2%로 나타났으며, ‘미용·애식 서비스직’, ‘영업·판매직’ 등의 순으로 모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은 모집률이 24.0%로 매우 낮았으며,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건설·채굴직’, ‘예술·디자인·방송직’ 등의 모집률도 30%대로 매우 낮게 나타남

<표 2-2-13> 직종 중분류별 제주지역 양성훈련 모집률

(단위: 명, %)

구 분	정원	실시인원	모집률
전체	8,165	3,813	46.7
01 관리직(임원·부서장)	-	-	-
02 경영·행정·사무직	1,531	615	40.2
03 금융·보험직	-	-	-
11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	-	-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	-	-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	-	-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728	175	24.0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20	6	30.0
21 교육직	-	-	-
22 법률직	-	-	-
23 사회복지·종교직	-	-	-
24 경찰·소방·교도직	-	-	-
25 군인	-	-	-
30 보건·의료직	203	173	85.2
41 예술·디자인·방송직	12	4	33.3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	-	-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196	142	72.4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89	57	64.0
53 음식 서비스직	3,411	1,669	48.9
54 경호·경비직	-	-	-
55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497	258	51.9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	-	-
61 영업·판매직	10	7	70.0
62 운전·운송직	-	-	-
70 건설·채굴직	50	16	32.0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90	24	26.7
82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	-	-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406	171	42.1
84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	-	-
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	-	-
86 섬유·의복 생산직	0	0	-
87 식품 가공·생산직	922	496	53.8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0	0	-
89 제조 단순직	-	-	-
90 농림어업직	-	-	-

※ 자료: 고용노동부, 『HRD-net』

- 다음으로 훈련 직종 중분류별 제주지역 훈련 실시인원, 수료인원 및 수료율을 살펴보면, 전체 인원 3,813명 중 3,426명이 훈련을 수료하여 수료율은 89.9%로 나타남
- 직종 중분류별로 제주지역에서 훈련 참여가 가장 많은 직종은 ‘음식 서비스직; 으로 43.8%에 해당하였으며, 다음으로 ‘경영·행정·사무직’이 16.1%, ‘식품 가공·생산직’이 13.0%,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이 4.6%, ‘보건·의료직’이 4.5% 등의 순이었음

- 수료자 규모도 실시인원 규모와 유사한 순으로 나타났으나, 수료율의 경우 '기계 설치·정비·생산직'이 가장 높았으며(100.0%), 참여자 전원이 훈련을 수료한 것으로 나타남

<표 2-2-14> 직종 중분류별 제주지역 양성훈련 수료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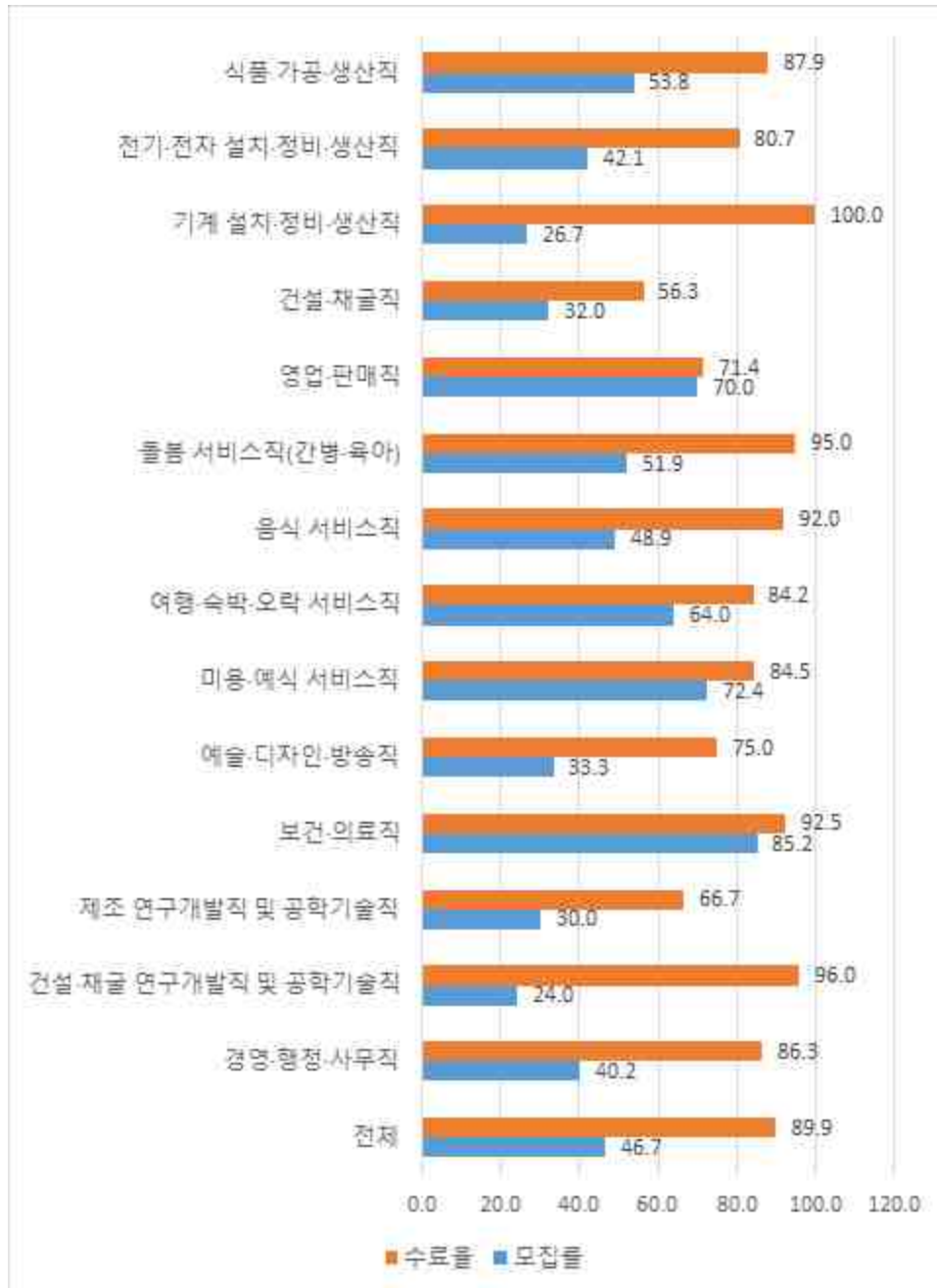
(단위: 명, %)

구 분	실시인원	수료인원	수료율
전체	3,813	3,426	89.9
01 관리직(임원·부서장)	-	-	-
02 경영·행정·사무직	615	531	86.3
03 금융·보험직	-	-	-
11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	-	-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	-	-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	-	-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75	168	96.0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6	4	66.7
21 교육직	-	-	-
22 법률직	-	-	-
23 사회복지·종교직	-	-	-
24 경찰·소방·교도직	-	-	-
25 군인	-	-	-
30 보건·의료직	173	160	92.5
41 예술·디자인·방송직	4	3	75.0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	-	-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142	120	84.5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57	48	84.2
53 음식 서비스직	1,669	1,535	92.0
54 경호·경비직	-	-	-
55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258	245	95.0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	-	-
61 영업·판매직	7	5	71.4
62 운전·운송직	-	-	-
70 건설·채굴직	16	9	56.3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24	24	100.0
82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	-	-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171	138	80.7
84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	-	-
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	-	-
86 섬유·의복 생산직	0	0	-
87 식품 가공·생산직	496	436	87.9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0	0	-
89 제조 단순직	-	-	-
90 농림어업직	-	-	-

※ 자료: 고용노동부, 『HRD-net』

- 훈련 직종 중분류별 제주지역 양성훈련 모집률 및 수료율을 그래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그림 2-2-2> 직종 중분류별 양성훈련 모집률 및 수료율



※ 자료: 고용노동부, 「HRD-net」

- 훈련 직종 중분류별 훈련 수료 후 취업인원 및 취업률을 살펴보면, 총 3,426명 중 40.8%에 해당하는 1,399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자가 가장 많은 직종은 '음식 서비스직'으로 전체 취업자의 40.4%에 해당하였으며, 다음으로 '경영·행정·사무직'이 17.1%, '식품 가공·생산직'이 11.2%, '보건·의료직'이 8.8%의 순으로 취업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취업률의 경우에는 '보건·의료직'이 76.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이 75.0%,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이 54.3%, '경영·행정·사무직'이 45.0% 등의 순으로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2-15> 직종 중분류별 제주지역 양성훈련 취업률

(단위: 명, %)

구 분	수료인원	취업인원	취업률
전체	3,426	1,399	40.8
01 관리직(임원·부서장)	-	-	-
02 경영·행정·사무직	531	239	45.0
03 금융·보험직	-	-	-
11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	-	-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	-	-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	-	-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68	56	33.3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4	3	75.0
21 교육직	-	-	-
22 법률직	-	-	-
23 사회복지·종교직	-	-	-
24 경찰·소방·교도직	-	-	-
25 군인	-	-	-
30 보건·의료직	160	123	76.9
41 예술·디자인·방송직	3	0	0.0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	-	-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120	40	33.3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48	18	37.5
53 음식 서비스직	1535	565	36.8
54 경호·경비직	-	-	-
55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245	113	46.1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	-	-
61 영업·판매직	5	2	40.0
62 운전·운송직	-	-	-
70 건설·채굴직	9	2	22.2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24	6	25.0
82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	-	-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138	75	54.3
84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	-	-
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	-	-
86 섬유·의복 생산직	0	0	-
87 식품 가공·생산직	436	157	36.0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0	0	-
89 제조 단순직	-	-	-
90 농림어업직	-	-	-

※ 자료: 고용노동부, 『HRD-net』

- 제주지역 향상훈련 공급 규모

- 2021년 제주지역에서 실시한 향상훈련에 참여한 인원은 총 4,727명이었으며, 이중 훈련을 수료한 인원은 4,530명으로 95.8%의 수료율을 보임
- 2021년 향상훈련 공급 규모를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업주지원금 훈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1,863명), 다으로 지역산업맞춤형 훈련,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향상훈련 유형별 수료율은 지역산업맞춤형훈련이 99.4%로 매우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업주지원금훈련이 98.0%,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이 89.3%의 순으로 나타남

<표 2-2-16> 훈련유형별 제주지역 향상훈련 실시규모

(단위: 명, %)

구 분	실시인원	수료인원	수료율
전체	4,727	4,530	95.8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1,405	1,254	89.3
사업주지원금훈련	1,863	1,826	98.0
지역산업맞춤형	1,459	1,450	99.4

※ 자료: 고용노동부, 『HRD-net』

- 향상훈련 유형별로 사업주지원금훈련, 지역산업맞춤형훈련,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2-3> 2021년 유형별 향상훈련의 실시인원 및 수료인원 비중(2020년)



- 고용직업분류(KECO) 중분류 기준(2-digit)으로 향상훈련 실시인원 및 수료인원을 살펴보면, 제주지역에서 2021년 향상훈련 실시인원이 가장 많은 직종은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으로 541명(11.4%)이었으며, 다음으로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이 10.2%, '경영·행정·사무직'이 10.1%, '건설·채굴직'이 7.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훈련 수료인원의 경우에도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이 533명(11.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이 10.6%, '경영·행정·사무직'이 10.5%, '건설·채굴직'이 7.4%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2-17> 직종 중분류별 제주지역 향상훈련 실시 및 수료인원

(단위: 명, %)

구 분	훈련실시		훈련수료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체	4,727	100.0	4,530	100.0
01 관리직(임원·부서장)	14	0.3	14	0.3
02 경영·행정·사무직	477	10.1	475	10.5
03 금융·보험직	29	0.6	29	0.6
11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	-	-	-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6	0.1	5	0.1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15	2.4	115	2.5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298	6.3	288	6.4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	-	-	-
21 교육직	-	-	-	-
22 법률직	-	-	-	-
23 사회복지·종교직	159	3.4	159	3.5
24 경찰·소방·교도직	-	-	-	-
25 군인	-	-	-	-
30 보건·의료직	186	3.9	184	4.1
41 예술·디자인·방송직	121	2.6	120	2.6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33	0.7	33	0.7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117	2.5	116	2.6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484	10.2	482	10.6
53 음식 서비스직	61	1.3	61	1.3
54 경호·경비직	-	-	-	-
55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541	11.4	533	11.8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	-	-	-
61 영업·판매직	0	0.0	0	0.0
62 운전·운송직	66	1.4	54	1.2
70 건설·채굴직	337	7.1	337	7.4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40	0.8	40	0.9
82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24	0.5	23	0.5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166	3.5	162	3.6
84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25	0.5	25	0.6
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	-	-	-
86 섬유·의복 생산직	-	-	-	-
87 식품 가공·생산직	23	0.5	21	0.5

구 분	훈련실시		훈련수료	
	인원	비율	인원	비율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	-	-	-
89 제조 단순직	-	-	-	-
90 농림어업직	-	-	-	-
y 분류불능	1,405	29.7	1,254	27.7

※ 자료: 고용노동부, 『HRD-net』

- 반면 제주지역 향상훈련의 수료율을 살펴보면 훈련 규모가 상위권에 속하지 않은 직종의 수료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는 ‘관리직(임원·부서장)’, ‘금융·보험직’,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사회복지·종교직’,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음식 서비스직’, ‘건설·채굴직’,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등의 직종 관련 향상훈련 수료율이 100.0%로 참여 인원 전원이 수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2-4> 직종 중분류별 향상훈련 수료율



□ 제주지역 인력 및 훈련공급조사 결과 시사점

- 훈련과정 융합화와 숙련수준별 모듈화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훈련체계 구축
 - 취업분야 특성에 적합한 훈련생 모집 및 훈련과목에 직무훈련 외에 업종이나 직종에서 요구하는 소양교육 등을 포함한 융합형 훈련프로그램을 설계
 - 훈련과정을 숙련수준별 또는 연관분야별 모듈화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훈련과정 개설기준을 다양화하여 훈련수요자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훈련과정이나 훈련프로그램의 차별화나 특화가 이루어지도록 설계
 - 일률적인 훈련기간을 설정하기보다는 숙련수준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훈련기간을 설정하고 수요자가 기초부터 심화된 과정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훈련과정을 모듈화하고 이에 부합하여 훈련기관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함
 - 취업률 성과지표에 대한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
 - 제주도의 특성상 대규모 공채보다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수시채용형식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훈련기간 종료와 기업의 채용 시기를 일치시키기 어려운 점이 많음
 - 따라서 취업성과를 개별 훈련기관의 실적평가로 접근하기보다는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고용센터 등에서 훈련시장과 채용시장의 연계를 위한 상시적인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3. 제주지역 인력 및 훈련수급 조사 분석 결과

□ 제주지역 인력 및 훈련수급 조사 분석 개요

○ 제주지역 인력 및 훈련수급 조사 분석 체계 및 방법

- 양성훈련

- 양성훈련 수급차는 훈련필요성과 훈련성과 지표를 바탕으로 훈련필요성 대비 훈련성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 이때 직업은 고용직업분류 기준으로 3개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함
- 양성훈련 필요성은 2022~2024년간 직업별 양성훈련 수요 규모의 누계치를 기준 지표로 측정하고, 양성훈련 성과는 2019~2021년간 양성훈련 참여자의 직업별 평균 취업률을 기준 지표로 측정함
- 훈련필요성의 경우 각 자료별로 3단계를 배정하는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앞에서 추정한 양성훈련 수요 규모를 활용하여 3단계 계층적 군집분석을 함. 즉, 양성훈련 수요를 추출한 후, 이를 클러스터 분석을 통해 3단계 군집화를 실시함
- 양성훈련 성과의 경우 『HRD-Net』 자료를 활용하여 훈련실시인원 대비 취업률이 높으면 훈련성과가 높다는 가정 하에 각각을 3단계로 군집화 함



- 이상에서 구한 훈련필요성과 훈련성과에 대한 3점 척도를 이용하여 직업 소분류 기준으로 '3×3 metrics'의 훈련 수급차 결과를 도출함

- 향상훈련

- 향상훈련 수급은 재직자 훈련을 기준으로 훈련필요성과 훈련성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훈련필요성 대비 훈련성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 이때 직업은 고용 직업분류 기준 35개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함
- 향상훈련 필요성의 경우 『2022년 지역 훈련수요조사』 결과를 통해 추정된 직업별 향상훈련 수요 규모를 활용하여 향상훈련 수요 규모가 많은 직업일수록 훈련필요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높은 값을 갖도록 군집분석을 함
- 향상훈련 성과의 경우 『HRD-Net』 자료를 활용하여 훈련실시인원에 대해 3단계 군집화를 실시함. 훈련실시인원이 많다면 훈련성과도 높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각 직업별로 3단계 군집화 함

※ 훈련성과로서 훈련수료율을 활용할 수도 있음. 하지만 훈련수료율은 직업별로 큰 편차가 발생하지 않아 변별력이 낮다고 판단되어 훈련규모를 지표로 활용함

- 향상훈련 수요 규모와 공급 규모 기준으로 3단계 군집화를 하고, 아래 <그림>에서 제시한 분류 기준 하에 '낮음'부터 '높음'에 이르기까지 직업별로 리커트 3단 척도를 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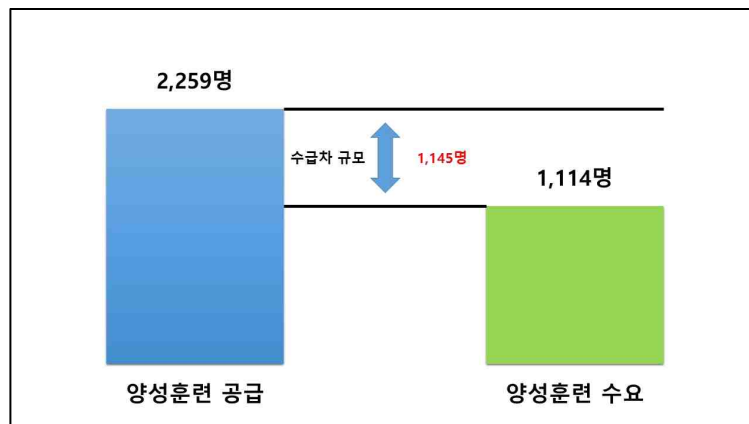
- 향상훈련 수급도 양성훈련과 마찬가지로 훈련필요성과 훈련성과에 대한 3점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직업별로 '3×3 metrics'의 훈련수급 결과를 도출함

□ 제주지역 인력 및 훈련수급조사 분석 결과

○ 제주지역 인력 및 훈련수급조사 분석결과

- 양성훈련 수급 추정 결과

- 2023년 제주지역 양성훈련 시장은 1,145명이 초과공급될 것으로 추정됨
- 양성훈련 공급은 훈련실시인원 기준 2019~2021년 평균으로 2,259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나 양성훈련 수요는 2023년 기준으로 1,114명으로 추정됨. 따라서 초과공급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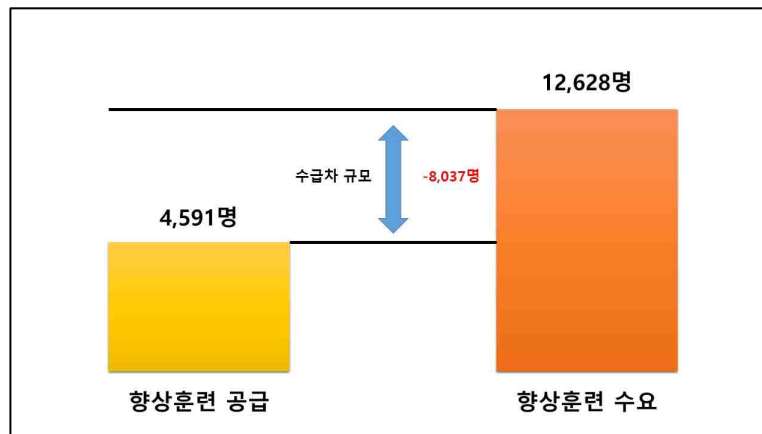
- 양성훈련 수요의 경우, 총 136개 소분류 직종 중 33.1%에 해당하는 43개 직업에서 양성훈련 수요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양성훈련 수요 상위 15개 직업에서 전체 양성훈련 수요의 75%를 차지함
- 훈련필요성과 훈련성과, 그리고 양성훈련 수급차 통계가 적어도 1개 이상 존재하여 훈련 수급 판별이 가능한 25개 직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검토 직업이 11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유지 직업 9개, 신설 직업 4개, 보류 직업 1개로 나타남
- 경영·행정·사무직과 돌봄 서비스직은 훈련필요성과 훈련성과는 높으나 훈련수급차에서 과다공급으로 나타나 검토 또는 유지 직업으로 판정되었으며, 반대로 예술·디자인·방송직과 건설·채굴직,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의 경우는 훈련필요성과 훈련성과는 낮으나 훈련수급차는 과소 혹은 적정공급으로 나타나 검토 또는 신설 직업으로 판정되었음
- 2021년 기준으로 채용인원 상위 5개 직업 중에서 사회복지·종교직은 신설이 필요한 직업으로, 음식 서비스직과 영업·판매직, 운전·운송직의 경우는 검토가 필요한 직업으로 판정되었음. 보건·의료직은 훈련성과는 높으나 과다공급으로 유지가 필요한 직업으로 판정되었음

<2023년도 직종 중분류별 양성훈련 수급 분석 결과>

구 분	훈련 필요성	훈련 성과	수급차 현황	최종판정
01 관리직(임원·부서장)	•	•	•	•
02 경영·행정·사무직	높음	높음	과다공급	검토
03 금융·보험직	•	•	•	•
11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	•	•	•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	•	•	•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보통		과소공급	신설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낮음	과다공급	유지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낮음	높음	과소공급	검토
21 교육직	•	•	•	•
22 법률직	•	•	•	•
23 사회복지·종교직	보통	•	과소공급	신설
24 경찰·소방·교도직	•	•	•	•
25 군인	•	•	•	•
30 보건·의료직	보통	높음	과다공급	유지
41 예술·디자인·방송직	낮음	낮음	과소공급	검토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	•	•	•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	낮음	과다공급	유지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낮음	낮음	과다공급	유지
53 음식 서비스직	보통	보통	과다공급	검토
54 경호·경비직	보통	•	과소공급	신설
55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높음	높음	과다공급	유지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낮음	•	과소공급	검토
61 영업·판매직	높음	낮음	과소공급	검토
62 운전·운송직	보통	•	과소공급	검토
70 건설·채굴직	낮음	낮음	적정공급	유지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낮음	높음	적정공급	검토
82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	•	•	•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낮음	높음	과다공급	검토
84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낮음	•	적정공급	유지
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낮음	•	적정공급	유지
86 섬유·의복 생산직	•	높음	적정공급	유지
87 식품 가공·생산직	보통	낮음	과다공급	검토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낮음	낮음	적정공급	신설
89 제조 단순직	낮음	•	과소공급	보류
90 농림어업직	낮음	•	적정공급	검토

- 향상훈련 수급 추정 결과

- 2023년도 기준으로 제주지역 향상훈련은 8,037명이 과소공급 상태일 것으로 추정됨
- 훈련 실시인원 기준으로 향상훈련 공급 규모는 2019~2021년 평균 4,591명이나 기업체의 향상훈련 수요 규모는 12,628명으로, 8,037명에 대한 향상훈련 공급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



- 직종 소분류 기준으로는 총 136개 직종 중 69개 직업에서 향상훈련 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상위 30개 직업에서 전체 향상훈련 수요의 94.0%의 비중을, 상위 10개 직업으로 국한할 경우 65% 내외의 비중을 차지함
- 훈련필요성과 훈련성과, 그리고 향상훈련 수급차 통계가 적어도 1개 이상 존재하여 훈련 수급 판별이 가능한 29개 직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검토 직업이 18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유지 직업 4개, 신설 직업 3개, 확대 직업 3개, 보류 직업 1개로 나타남
- 관리직,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영업·판매직,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식품 가공·생산직의 경우는 훈련필요성과 훈련성과는 낮으나 훈련수급차는 과소공급으로 검토 또는 확대 직업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경영·행정·사무직, 보건·의료직, 돌봄 서비스직, 운전·운송직, 건설·채굴직의 경우는 훈련필요성은 보통이나, 훈련성과는 높고 훈련수급차도 과소공급으로 나타나 검토가 필요한 직종으로 판정함
- 인력수요 상위 직업에 속하는 직업 중에서 사회복지·종교직은 훈련필요성과 훈련성과는 보통이나 훈련수급차는 과소공급으로 확대가 필요한 직업으로 판정되었고, 사회복지·종교직,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음식 서비스직,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의 경우는 검토가 필요한 직업으로 판정되었음
- 경호·경비직과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의 경우는 훈련필요성은 낮음에도 불구하고 훈련 수급차에서 과소공급으로 나타났음. 여기에 제주지역 내에서 경호보안 종사자와 환경 관련 장치

조작원에 대한 인력수요 요구가 커짐을 반영하여 신설이 필요한 직업으로 판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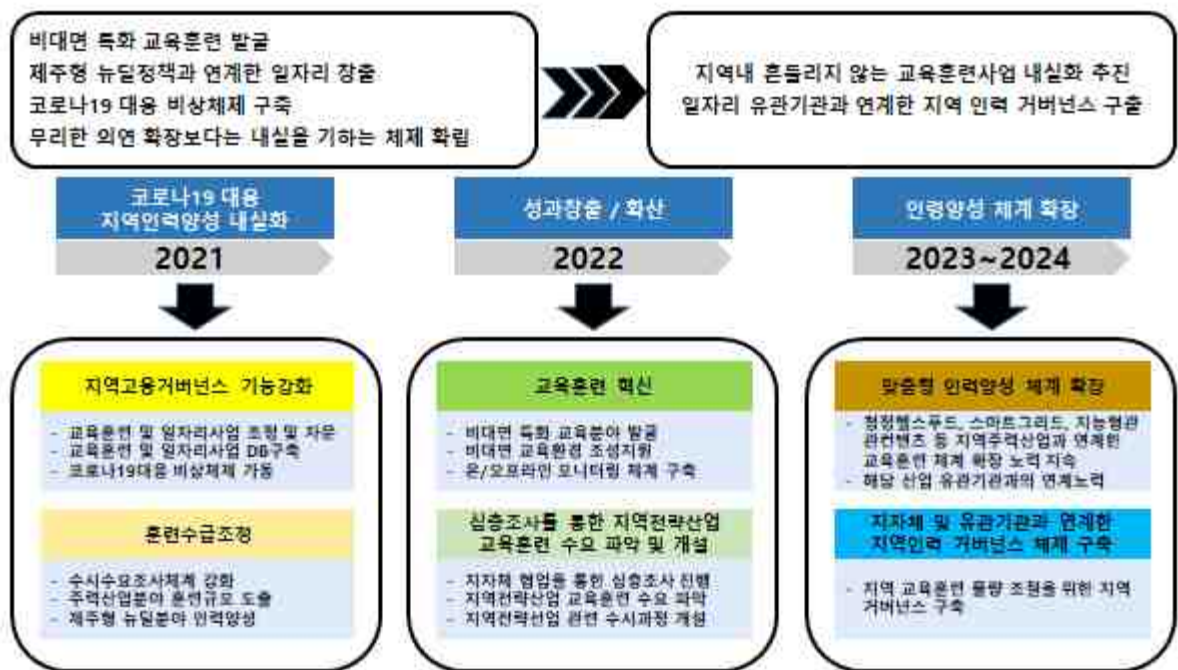
<2023년도 직종 중분류별 향상훈련 수급 분석 결과>

구 분	훈련 필요성	훈련 성과	수급차 현황	최종판정
01 관리직(임원·부서장)	낮음	낮음	과소공급	확대
02 경영·행정·사무직	보통	높음	과소공급	검토
03 금융·보험직	•	낮음	과다공급	•
11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	•	•	•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낮음	적정공급	유지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낮음	낮음	과소공급	검토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낮음	높음	과다공급	검토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낮음	•	과소공급	검토
21 교육직	•	•	•	•
22 법률직	•	•	•	•
23 사회복지·종교직	보통	보통	과소공급	확대
24 경찰·소방·교도직	•	•	•	•
25 군인	•	•	•	•
30 보건·의료직	보통	높음	과소공급	검토
41 예술·디자인·방송직	낮음	낮음	과다공급	검토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	낮음	과다공급	유지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	낮음	과다공급	검토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보통	높음	과다공급	검토
53 음식 서비스직	높음	낮음	과소공급	검토
54 경호·경비직	낮음	•	과소공급	신설
55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보통	높음	과소공급	검토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보통	•	과소공급	검토
61 영업·판매직	낮음	낮음	과소공급	검토
62 운전·운송직	보통	높음	과소공급	검토
70 건설·채굴직	보통	높음	과소공급	검토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낮음	보통	과소공급	검토
82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낮음	낮음	과소공급	검토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낮음	보통	과다공급	검토
84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	낮음	과다공급	유지
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낮음	•	과소공급	신설
86 섬유·의복 생산직	낮음	•	적정공급	유지
87 식품 가공·생산직	낮음	낮음	과소공급	확대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낮음	•	과소공급	신설
89 제조 단순직	낮음	•	적정공급	보류
90 농림어업직	낮음	•	과소공급	검토

III. 제주지역 인력양성 기본방향

1. '22년도 제주지역 인력양성 기본방향 성과

□ 2022년도 제주지역 인력양성 기본방향



□ 2022년도 제주지역 인력양성 성과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훈련실적(2022년 10월 기준)

- 정기

공동훈련센터	목표인원(명)	실적					
		실시인원(명)	실시율(%)	중도탈락(명)	훈련중(명)	수료인원(명)	수료율(%)
합계	1,472	1,074	72.0	5	25	1,044	97.7
한국폴리텍 제주캠퍼스	535	365	68.2	-	-	365	100.0
제주관광대	400	246	61.5	2	-	244	99.2
제주한라대	537	463	86.2	3	25	435	94.0

- 수시

공동훈련센터	목표인원(명)	실적					
		실시인원(명)	실시율(%)	중도탈락(명)	훈련중(명)	수료인원(명)	수료율(%)
합계	340	269	93.1	-	13	256	95.1
한국폴리텍 제주캠퍼스	65	68	104.6	-	-	68	100.0
제주관광대	200	112	56.0	-	-	112	100.0
제주한라대	75	89	118.7	-	13	76	85.4

- 4차 산업혁명 관련 과정 실적 증진 노력

공동훈련센터	훈련과정
한국폴리텍 제주캠퍼스	- 신재생에너지 계통연계설비 운영 (16개 기업, 16명 수료) - 신재생에너지 전기저장설비 시공 (2개 기업, 27명 수료) - 전기자동차정비 (14개 기업, 13명 수료) - 자동제어시스템분석 (5개 기업, 5명 수료) - 중장년 ICT 스마트앱을 활용한 전기자동제어 (16개 기업, 17명 수료)
제주관광대	3D건축설계 및 3D프린팅 직무능력 향상과정 (26명 수료)
제주한라대	- 빅데이터기반 데이터 시각화 분석 향상과정 (40개 기업, 71명 수료) - 제주관광 홍보를 위한 증강현실(AR) 개발 향상과정 (4개 기업, 23명 수료) - 중장년 ICT 실무 엑셀 향상과정 (37개 기업, 55명 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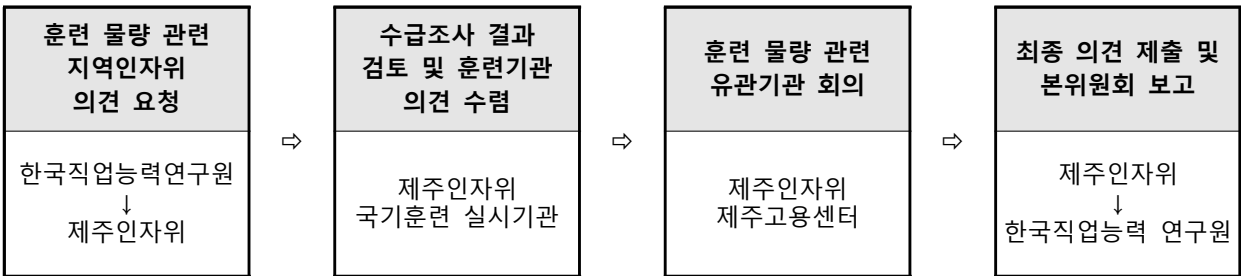
- 지역 주력산업 및 계층별 맞춤 수시과정 개발 및 운영

공동훈련센터	훈련과정
한국폴리텍 제주캠퍼스	- 배전반제어를 위한 발전기설비시공 - 자동제어시스템분석 - 태양광발전설비시공
제주관광대	- 식품 위생관리 및 공정관리 실무 직무능력 - 영업장 위생관리 및 공정관리 실무 직무능력 - 온라인 플랫폼 활용 마케팅 직무능력 향상과정 - 양식 한식 조리 실습 - 웨딩이벤트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제주한라대	- 제주관광 홍보를 위한 증강현실(AR) 개발 향상과정 - 디지털 디자인을 활용한 앱진/웹진 개발 향상과정 - 요양 사고 예방 응급처치 향상과정 - 중장년 사회복지 관련 분야 건강지원 및 응급처치 향상과정

○ 2023~2024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물량 의견 제시

구 분	주요내용
조사명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물량에 대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의견조사
목 적	• 지역·산업 수요에 기반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의 적정 공급규모 작성
주 관	• 고용노동부
연구기관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지역·산업HRD연구센터
의견 전달 주요내용	• 제주지역 인력 및 훈련수요, 직종별 훈련성과, 취업성과 검토 내용

- 추진 프로세스



- 연도별 제주지역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공급추정 규모

지역명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제주	공급량 추정치	50	(57)62	71	91

※ 출처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지역·산업HRD연구센터

※ 현재 제주지역 내 1개 직종(내선공사)에 대한 국기훈련 실시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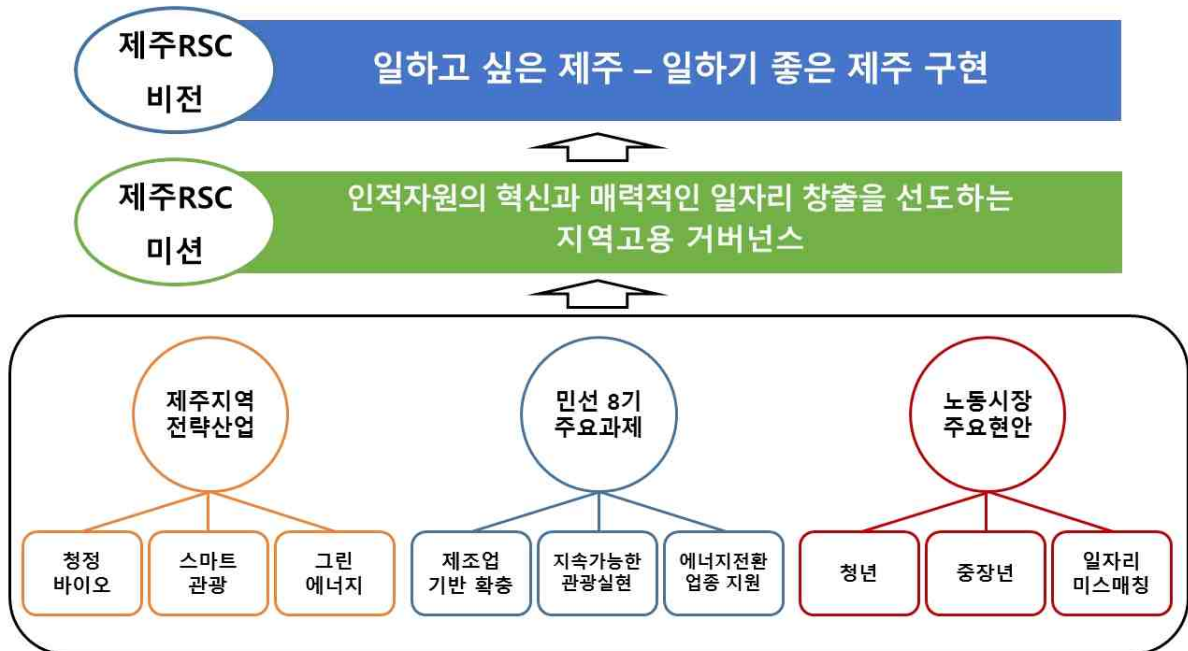
- 최종 제출의견

훈련연도	훈련공급량에 대한 조정의견	조정 근거
2023년	2020년 훈련실적과 2021년 훈련공급은 각각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022년 제주지역 전체 채용예정인원과 양성훈련 수요가 전년대비 모두 증가한 가운데,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비중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남. 해당 내용들을 근거로 2022년 62명에서 2023년 71명으로 훈련공급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함	2023년 제주지역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물량에 관한 회의 결과(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참여) - HRD-Net 훈련실적 2020~2021년 『제주지역 인력 및 훈련수요·공급 조사』 결과
2024년	2021년 전기공 직종 퇴직인원 중 근속연수 1년 미만 종사자 비중이 매우 높으며, 미충원인원도 신입직에서만 발생하고 있어 신규인력 양성훈련 공급에 대한 필요성은 지속되고 있음. 따라서 훈련공급규모를 2023년 71명에서 2024년 91명으로 확대한 것에 이견은 없음	-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의견 접수 - HRD-Net 훈련실적 2022년 제주지역 「기초 훈련수요조사」 결과

2. '23년도 제주지역 인력양성 기본방향

□ 제주지역 인력양성의 기본방향(중장기 로드맵 포함)

○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비전 및 전략, 인력양성 주요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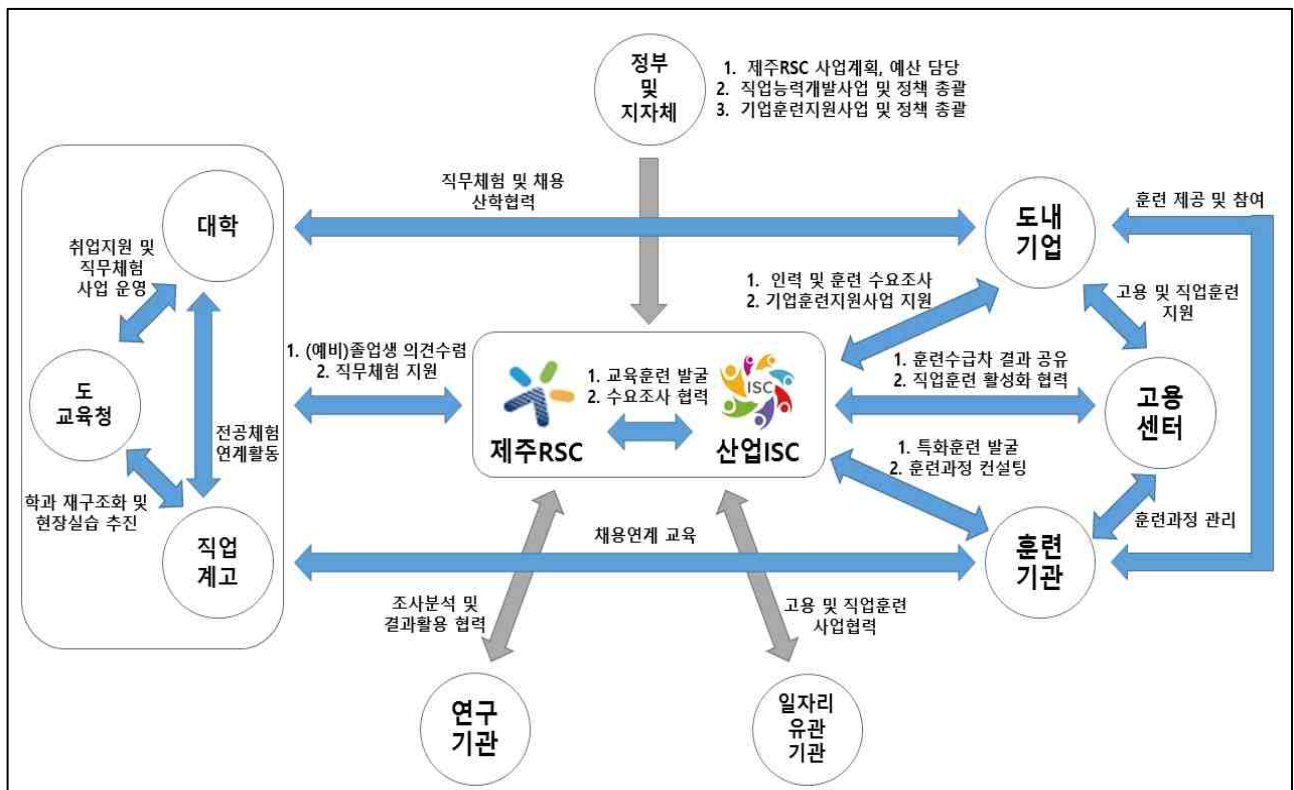
○ 2023년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인력양성 주요 활동



○ 향후 3년 간 제주지역 인력양성 추진 방향(2023년~2025년)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직업능력 개발훈련	-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등 온라인훈련 홍보 및 참여 확대 - 도내 특화훈련 발굴여건 검토	- 온라인훈련 참여실적 등 성과 점검 - 도내 대면실습 필요분야 도출 - 산업별 ISC 연계 특화훈련 발굴 및 운영	- 온라인훈련 공급 확대 및 품질 개선 - 특화훈련 참여실적 등 성과 점검 - 신규 특화훈련 발굴 및 운영 지속
훈련과정 운영기관	- 기존 및 신규 훈련과정 운영을 위한 훈련인프라(시설, 장비, 강사 등) 개선사항 도출 - 도내 훈련/일자리 사업 관련 모니터링	- 훈련수급차 결과에 따른 과소·과잉공급 해결방안 도출 - 도내 특화훈련 발굴 및 운영 제안	- 훈련과정 발굴 및 개선 컨설팅 실시 - 도내 특화훈련 운영성과 점검
직업계고	- 학과 재구조화에 따른 현장실습 등 직업 훈련 방향 설정	- 원활한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등을 위한 지원사업 도입	- 학과 재구조화 및 지원사업 성과 점검
대학교	- 졸업생 구직 실태 및 희망직종 파악을 위한 조사 협력 체계 구축	- 직무체험 등 일경험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 및 지원사업 실시	- 산학협력 및 지원사업 성과 점검
중장년	- 도내 중장년 취업 및 직업훈련 실태 파악	- 산업별 중장년 고용희망기업 취업연계 및 맞춤형 직업훈련 제공	- 취업연계 및 직업훈련 운영 성과 점검
여성	- 경력단절여성 등 도내 여성 재취업 관련 고용 및 직업훈련 실태 파악	- 산업별 여성 고용희망기업 취업연계 및 맞춤형 직업훈련 제공	- 취업연계 및 직업훈련 운영 성과 점검
장애인	- 도내 장애인근로자 필요 주요업종 및 직업훈련 실태 파악	- 도내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취업연계 및 맞춤형 직업훈련 제공	- 취업연계 및 직업훈련 운영 성과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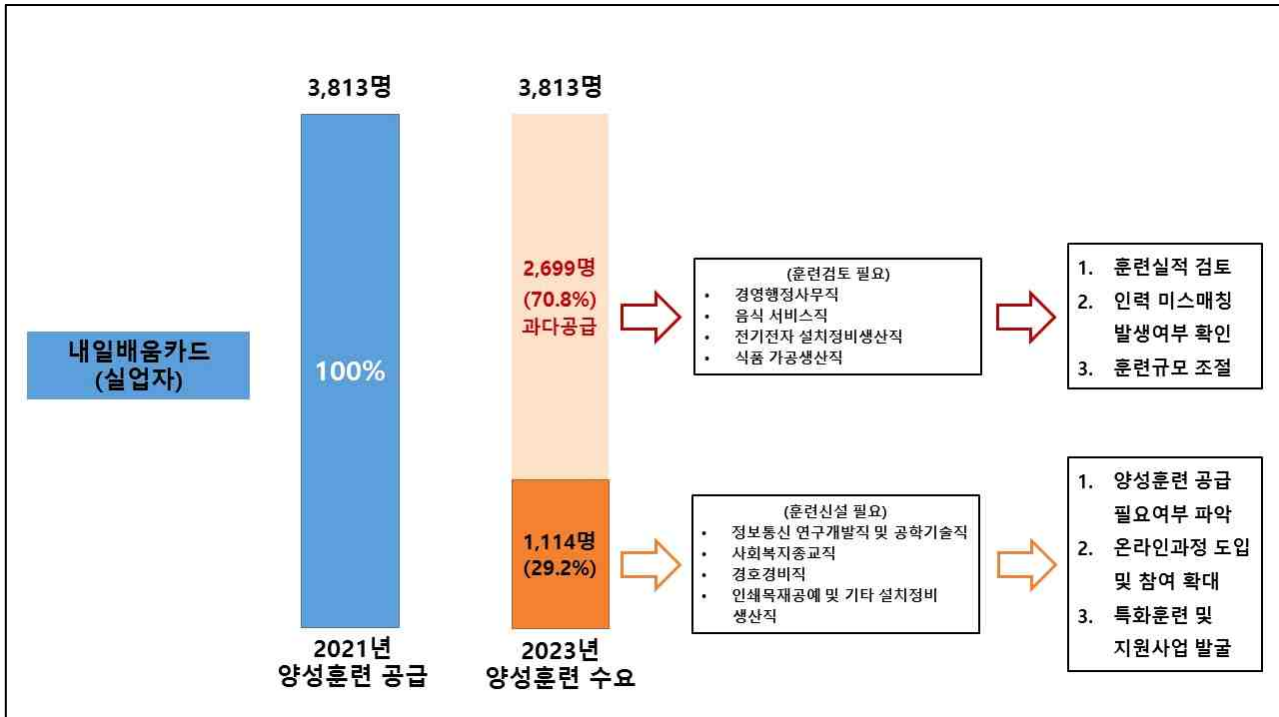
○ 2023년 제주지역 인력양성 추진을 위한 기관별 역할



□ 제주지역 인력양성 관련 종합 결론 및 제언

○ 수급분석 결과에 따른 훈련공급 대책 마련

- 양성훈련



※ 2021년 기준 제주지역 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이 1개 직종(내선공사)에 대해 실시되었으나, HRD-Net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아 양성훈련 공급 규모에 포함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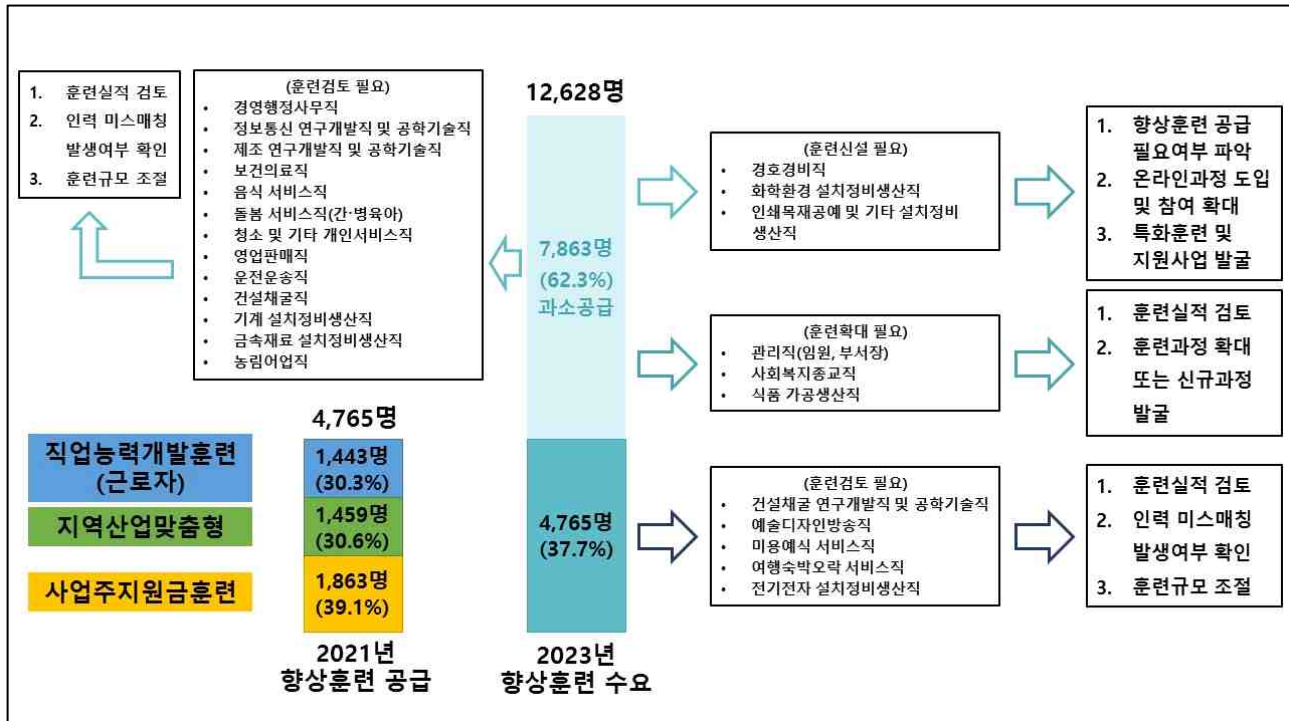
- 제주지역 내 훈련시설이 필요한 4개 직종의 경우 2019년부터 훈련공급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으로, 해당 직종에 대한 훈련공급기관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1차적으로는 원격훈련으로 훈련공급을 실시하도록 하며, 해당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중점 산업을 파악하여 적절한 훈련 내용을 발굴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훈련기관과 특화훈련을 발굴·운영하도록 함

※ 특히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자’ 훈련수요가 높은 상황으로,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 같은 원격훈련으로 디지털·신기술 훈련이 공급될 수 있도록 우선 추진함

- 훈련검토가 필요한 9개 직종 중 훈련수요에 비해 과잉공급되고 있는 직종은 총 4개임. 따라서 훈련실적 등을 바탕으로 적절한 훈련공급 및 취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세부직종별로 훈련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규 훈련과정 개설 또는 기존 훈련과정 보완을 실시하도록 함. 한편 과소공급 5개 직종에 대해서는 훈련별 과정 신설 및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함

구분		직종(KECO 중분류)	훈련별 실시 여부 (2021년 기준)		2023년 추진(안)
			국민내일 배움카드 (구직자)	국가기간 전략산업	
훈련 신설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	-	온라인과정 도입 및 특화훈련 발굴 검토
		사회복지·종교직	-	-	
		경호·경비직	-	-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	-	
훈련 검토	과소 공급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	-	훈련별 과정 신설 및 확대 검토
		예술·디자인·방송직	○	-	
		영업·판매직	○	-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	-	도내 훈련공급 여부 파악
		운전·운송직	-	-	
	과다 공급	경영·행정·사무직	○	-	훈련별 과정 유지 및 축소 검토
		음식 서비스직	○	-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	○	
		식품 가공·생산직	○	-	

- 향상훈련



- 제주지역 내 훈련신설이 필요한 3개 직종의 경우 훈련수요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바탕으로 개별기업 현황에 맞는 훈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함. 이와 함께 한국산업인력공단 컨설팅 등을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설계부터 HRD-Net 연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함

구분	2021년	2023년(안)
제주지역 사업주지원금 훈련 실시직종 (KECO 중분류)	- 경영·행정·사무직 - 금융·보험직 -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 사회복지·종교직 - 보건·의료직 - 예술·디자인·방송직 - 미용·예술 서비스직 -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 운전·운송직 -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 식품 가공·생산직	- 경영·행정·사무직 - 금융·보험직 -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 사회복지·종교직 - 보건·의료직 - 예술·디자인·방송직 - 미용·예술 서비스직 -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 경호·경비직(신설) -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 운전·운송직 -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신설) - 식품 가공·생산직 -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신설)

- 현재 훈련 과소공급인 상태로 훈련규모 확대가 필요한 3개 직종에 대해서는 기존 훈련기관의 훈련실적 등을 바탕으로 훈련과정 확대 또는 신규 훈련과정 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함. 다만, ‘사회복지종교직’의 경우 훈련수요가 공급량에 비해 과다하여 기존 훈련기관만으로 공급량을 충족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되어, 신규 훈련기관 발굴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훈련공급 규모 검토가 필요한 18개 직종에 대해서는 도내 지역산업맞춤형 3개 공동훈련센터에서 실시하는 훈련 직종과 유사한 부분이 많으며, 특히 현재 훈련 과소공급인 13개 직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심층조사를 통해 특화훈련 분야를 발굴하여 수시과정으로 훈련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함. 만일 교대근무 등 근무여건으로 인해 집체교육이 어려운 직종에 대해서는 원격훈련으로 직무능력 향상훈련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함

구분	직종(KECO 중분류)		훈련별 실시 여부 (2021년 기준)			2023년 추진(안)
			국민내일 배움카드	사업주	지산맞	
훈련 확대	관리직(임원, 부서장)		-	-	○	훈련별 과정 신설 및 확대 검토
	사회복지·종교직		-	○	○	
	식품 가공·생산직		○	○	○	
훈련 검토	과소 공급	경영·행정·사무직	○	○	○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	○	○	
		보건·의료직	○	○	○	
		음식서비스직	○	-	○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	○	○	
		영업·판매직	○	-	-	
		운전·운송직	-	○	-	
		건설·채굴직	○	-	○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	○	○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	-	○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	-	-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	-	-	도내 훈련공급 여부 파악
		농림어업직	-	-	-	
	과다 공급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	○	○	훈련별 과정 유지 및 축소 검토
		예술·디자인·방송직	○	○	○	
		미용·예식 서비스직	○	○	○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	○	-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	○	○	

<참고> 2022~2023년 지역산업맞춤형 훈련 목표인원 비교

훈련구분	훈련직종	'23년 훈련목표 인원(A)	'22년 훈련목표 인원(B)	증감 (A-B)
전 체		1,572	1,485	87
양성훈련	미용·예식 서비스직	14	13	1
향상훈련	관리직(임원·부서장)	30	15	15
	경영·행정·사무직	200	120	80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05	200	-95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40	200	-60
	사회복지·종교직	60	32	28
	보건·의료직	120	100	20
	예술·디자인·방송직	105	80	25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45	90	-45
	음식 서비스직	228	160	68
	건설·채굴직	255	180	75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105	60	45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30	45	-15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135	190	-65

※ 상기 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훈련목표인원은 2023년 정기 훈련과정에 대한 인원만을 산정한 것으로, 해당 훈련 목표인원 이외에도 수시과정을 추가로 개설하여 훈련공급이 가능함

※ 2023년 훈련목표인원 및 훈련직종은 최종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근 제주지역 일자리 환경변화와 정책과제

- 청년층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이 필요
 - 제주지역 고용률은 전반적으로 전국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을 견지해 오고 있으나 청년층 고용률은 오히려 전국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청년층 고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
 -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력양성정책을 보상체계와 연계하거나 기타 청년층을 유인하는 보조금 정책이나 경력개발정책 등과 같은 노동시장정책 외에 주거, 복지 지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함께 도모하여야만 청년일자리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제주도형 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 필요
 -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배경으로 재화와 서비스 모두의 생산과 소비에서 글로벌화가 가속적으로 또한 전면적으로 전개될 것인 만큼 디지털 전환 인력 대책이 디지털 기술에 특화된 인력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이 제공하는 가능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인력양성 및 인력활용의 개편을 고려
 - 기술변화로 인한 조정 과정의 원활화를 위해, 새로운 고용형태 등장에 따른 불안정성 증대에 따라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일자리 양극화가 소득의 양극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
 - 비임금노동의 축소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임금노동 외부에서 이뤄지는 개인 주도 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하고 핵심 경제 주체로서 기업 내부에서의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 주도 직업능력개발도 활성화

○ 2023년 제주지역 훈련공급 정책 기본방향

- 제주도 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훈련공급 정책 마련
 - 제주도 인력 및 훈련수요의 약 80% 내외가 제주시에서 발생하고 있고, 나머지 20% 내외만이 서귀포시에서 발생하고 있음. 인력수요를 고려한 훈련과정 개발 및 지원 대상 기업 선정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매우 다름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지리적 특성 등으로 훈련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방문이나 현장훈련과 연계한 훈련프로그램의 개설, 온라인 훈련과정의 개설 등 다양한 형태의 훈련공급방식 모색 필요

- 현장 사례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훈련수요가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적절한 훈련과정을 도출하고 기업맞춤형 훈련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훈련프로그램 공급방식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
-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도입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 제주도 소재 기업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분야 도입 여부에 대해 파악한 결과, 응답기업의 2.9%만이 도입 중이라고 응답함. 이는 전국 평균인 3.8%보다도 낮은 수준임. 특히 미도입 기업 중 88.4%에 해당하는 대다수 기업들은 향후에도 도입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8.6%의 기업만이 2023년 말까지 혹은 2024년 1월 이후에 도입 예정으로 응답
 - 4차 산업혁명은 지능형로봇, AI, IoT 등 미래형 기술이 기술-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나아가 우리 삶의 방식까지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제주도 역시 전략산업 선정, 기술연구소 설립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있으나, 우선적으로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신기술 도입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루어진 다음 교육훈련에 대한 준비와 기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지역 내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효율화

- 훈련성과 제고를 위한 인적자원관리 정책 강화
 - 훈련을 받은 인력이 훈련수요가 높은 기업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기업으로 우선적으로 매칭될 수 있도록 하여 정착률을 제고
 - 훈련을 통해 숙련된 인력을 양성해도 이들이 갈 수 있는 사업장의 영세성으로 훈련받은 인력들의 눈높이가 맞지 않아 취업이 안 되거나 단기간 내에 이직하는 경우가 발생.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은 숙련이 체화된 인력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청년층의 경우 훈련-취업-직장유지율 제고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칭서비스의 효율화 및 경력관리를 지원
- 지역수요에 부합하는 훈련과정 개설
 - 제주도와 같이 지역특성이 전국적인 표준과 차이가 나는 지역에서는 직종제한을 두기보다는 민간시장의 자율에 맡겨 훈련과정 개설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시장 조절메커니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관광이나 컨벤션 같은 분야의 훈련과정 개설에서도 해당 분야의 전통적인 직무 훈련도 중요하지만 해당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의 훈련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훈련과정 개설을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 민간 훈련시장의 안정화를 통한 훈련공급체계 지속성 유지
 - 지역수요에 부합하는 신규훈련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훈련과정 개설 이후 3~4년 동안 과정이 보장되어야 투자가 가능한데 과정인증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질 경우 훈련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아 훈련과정의 안전성을 일정기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지역수요에 부합하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적어도 3~4년 기간 동안 장기과정 개설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훈련과정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훈련기관들이 다양한 훈련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훈련과정 평가의 유연성 필요
 - 재직자 훈련의 경우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의 여건상 재직자들이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따라서 출석률을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음
 - 재직자 훈련과정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규모 기업의 경우 재직자들의 여건을 감안한 훈련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

- 제주도의 미래 전략산업과 관련한 훈련은 단기 훈련수요에 대응하여 접근하기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
 - 미래 전략산업, 기존 산업의 구조조정 등 기술혁신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수급 및 양성체계 모색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
 - 훈련시설, 장비, 훈련교사 등 훈련공급체계뿐만 아니라 중장기 훈련수요에 대응한 구체적인 훈련 직종의 추세 및 기업의 인력수급 동향을 검토하여 중장기 관점에서 대응이 필요
 - 훈련 프로그램이 다양한 숙련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훈련프로그램의 숙련수준별 모듈화를 구축하려 숙련수준별로 심화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우수 교강사를 확보 및 양성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 수요에 부합하는 훈련체계 구축을 위한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역할 강화
 - 해당 산업의 핵심직무에 해당하는 기술이나 숙련과 관련된 훈련과정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 제주도 내 교육 및 훈련기관에서 이러한 인력들의 훈련 공급실태 및 향후 공급전망을 파악하여 미래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 이를 위해서는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중장기 미래 전략 산업에 부합하는 훈련직종을 중심으로 훈련기관들의 인프라(교육과정, 훈련교사, 훈련시설)를 점검하고 미래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컨설팅 및 지원사업을 수행